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64호
2024년 9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김범섭 북가주 회장(왼쪽)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서부 지부 탐방에 나선 제17대 미주동창회 집행부. 왼쪽부터 백정현 광고국장,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김경숙 사무총장, 백옥자 총무국장.



김경숙 사무총장과 오레곤 지부 한경애 동문(오른쪽). 한 동문의 집은 각종 야채를 키우는 텃밭이 인상적이었다.

“2400마일 달리며 만난 동문들 자랑스러워”

이상강 미주동창회장단 북가주 · 오레곤 · 워싱턴주 등 서부 3개 지부 방문

미주동창회 회장단이 2024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북가주, 오레곤, 워싱턴 주까지 편도 1200마일을 차편으로 이상강 회장, 김경숙 사무총장, 백정현 광고국장, 백옥자 총무국장이 지부를 방문 했다.

북가주 지부 방문

먼저 북가주 지부를 평탄한 도로로 운전하며 Los Altos 시티에 있는 Chef Chu's Chinese Restaurant에 도착했다. 이 식당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식당으로, 전세계 유명 인사들이 와서 찍은 사진이 많이 있고 Chef Chu의 아들은 Jon Chu, 유명한 영화감독

지역 동문들 모두 반갑게 맞아줘 너무 감사 장학금 · 젊은 동창회 활성화 지원금도 전달

독으로 Crazy Rich Asians movie 와 이병헌이 나오는 G.I. Joe movie 를 감독해 Chef Chu가 이병헌 만났었다고 항상 자랑하는 식당이다. 식당에 참석한 아래의 임원진이 밝은 표정으로 반겨주셨다. 김철규 동문회 이사장 부부(공대 60), 김범섭 동문회 회장(공대 79) 최승희(사회대 81)부부, 강정수 전 이사장(문리대 61), 최경선 전 회장 부부(농대 65), 홍경삼 홍보위원장 부부(문리대 61), 임준원 전 회장 부부(공대 77) 등이 참석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 회장은 장학금 2000불과 북가주지부의 젊은 세대 관악연대의 동창회 참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 기금 2500불을 지원했다.

오레곤 지부 방문

오레곤 지부 박희진 회장은 휴가로 인해 한경애 동문(가정대)대를 방문하고 워싱턴 주 지부를 함께 방문했다. 한경애 동문은 김경숙 사무총장과 동

창회 지중해 크루즈에서 선후배로 만나 인연이 되어 함께 자리했다.

뉴욕에서 이주해 뒷뜰에 각종 야채를 심었는데 호박이 야구방망이 같이 크고 고추도 아삭하며, 참외 오이는 특이하게 동그란 것이 상큼한 맛을 주었다. 텃밭 가꾸기가 일상이 되어 버린 바쁘지 않은 노년생활에 마음이 풍요로워 보였다.

워싱턴 주 지부 방문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워싱턴주 지부(회장 임헌민 공대 84) 여름 피크닉에 참가를 위해 Redmond 시내에 있는 Perrigo Park로 갔다. <2면으로 계속>



미주동창회 임원진이 샌프란시스코 유명 맛집 셰프 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지부 임원진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최경선 전 회장(왼쪽) 이상강 회장(가운데) 김범섭 현 회장(오른쪽)이 나란히 앉아 있다.



미주동창회 임원진이 워싱턴주 임헌민 회장의 저녁 초대로 임 회장의 집을 방문한 미주동창회 임원진이 지부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서부 3개 지부 이어 동부 5개 지부 탐방 나섰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단 6500마일 대장정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의대 70)이 북가주, 오레곤, 워싱턴주 등 서부 3개 지부를 찾아가 동문들을 만난 데 이어 이번엔 시카고, 미시간, 뉴잉글랜드, 코네티컷 그리고 조지아까지 동부 5개 지부 동문들을 만나러 떠났다.

지난 8월25일 차를 몰고 LA를 출발해 시카고를 시작으로 미시간, 보스턴을 거쳐 조지아까지 16일 동안 6500마일을 달리는 강행군으로 부인인 김경숙 사무총장(가정대 70)과 백옥자 총무국장(음대 71)이 동행했다.

이상강 회장이 지난 8월8일부터 12일

시카고, 미시간, 뉴잉글랜드, 코네티컷, 조지아 동문들 만나 지부 동창회 활동 얘기 듣고 격려

까지 편도 1200마일을 달려 서부 동문들을 만난지 불과 10여일만에 다시 먼 길을 나선 건 직접 찾아가 각 지부 동창회의 활동 현황을 보고 들으며 미주동창회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미주동창회장이 되면서 전국 각 지부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번에 서부 3개 지부 방문을 통해 동문들과 의미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내친 김에 신발끈을 다시 한번 조여맨 것이다.

앞서 이미 뉴욕과 하트랜드, 워싱턴 DC를 방문했으니 이번 강행군이 끝나면 텍사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네소타 등 서너개 지부를 빼면 전국 지부를 다 방문하게 되는 셈이다.

차로 6500마일은 무리한 일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상강 회장은 “70대 아직 젊은 나이”라며 웃어 넘겼다. 그리고 서부 3개 지부 동문들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동문들이 서로 존중하며 서울대 가족으로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고, 직접 장학금과 젊은 동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주면서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미주동창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 몸이 조금 고생스러웠던 것은 다 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면에서 계속>

50여분의 동문들이 가족 분위기로 꿈치도 구우며, 준비하는 모습이 화목해 보였다.

동창회가 있어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으니 동창회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앉아 마자 주신 낙지전은 여지껏 먹어 본 중에 제일 맛있었다. 음식도 여러분이 각자 해온 정성 어린 밥상이었고 산에서 캔 버섯도, 뜰에서 딴 고추튀김도 꿈치 구이도 싱싱한 고추에 된장 찜도 맛있는데 없었다.

6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이상강 회장님께서 2000불을 보조해 주셨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평생 그 고마움을 느끼며 훌륭하게 되어 그 또한 후배들에게 베프리라 본다.

(워싱턴 주 피크닉 기사 참조)

워싱턴 주 지부 임원진들과 우리 회장단을 임헌민 회장님께서 저녁 초대를

하여 갔을 때 너무 놀랐다. 젊은 부부가 얼마나 큰집에 박물관 같은 인테리어는 서울대의 자부심을 느끼게 했으며 자랑스런 동문이 아닐 수 없다.

안주로 만들어진 Mrs.김재훈 박사의 안주장식에 ‘서울대 미주동창 회보’를 올려 만든 깃발에 “환영합니다”라고 쓴 재치가 어디서 나왔을까? 서울대 가족임이 틀림없다.

Mrs.임헌민의 손수 하나하나 만든 수육무침, 삼겹살, 회, 냉면 등은 음식점을 내도 손색이 없는 맛으로 “이럴 수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또한 문쳐서 어울어지는 동문님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은 정말 본 받아야 할 모습이였다. 워싱턴 주 지부의 동문화 활동을 앞으로 기대해 본다.

이상강 회장님 조카댁 방문

이상강 회장님 조카가 산다는 Hansville

(Hood canal 입구 지역)로 갔다. 그 동네는 요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사는 멋진 낭만적인 동네이다.

배가 몇대 집 뒤에 정박해 있고 자주 바닷가에 나가 게도 잡아오고 새우나 생선등으로 멋진 요리를 만들며, 앞마당은 한국의 시골풍을 느끼게 하는 갖가지 채소와 봉숭화 꽃을 비롯해 주황색, 분홍색 가지각색꽃이 어쩜 평화 그자체로 며칠 더 있고 싶을 정도였다.

하룻밤을 남자 두분은 배에서 여자분들은 집 안에서 취침하고 다음날 Buck Lake Native Plant Garden을 산책했다. 아주 울창한 숲으로 나(백옥자)와 오레곤 한경애(가정 69) 동문은 길을 잃었다. 서로 “야호” 하며 아무리 외쳐도 나무가 가로 막혀 들을 수가 없었다. 더 길을 찾다가는 나가는 길도 잃을까봐 우리 둘은 부랴부랴 되돌아 왔다.

이번 여행에서는 여성의 힘 리더십을

느끼며 American Dream을 이룬 분들이 많아 마음이 흐뭇했다. 점심으로 배타고 나가서 잡아온 게를 한마리씩 삶아 주었는데 그 맛은 눈이 절로 감겨 “흠~”을 계속 연발 했다. 이번 서부 지부 탐방은 역시 만나서 소통이 가장 친근과 합심과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로 값진 큰 성과를 거두는 17대 이상강 회장님의 저력이 보여졌다.

하트랜드에서 남가주까지 질주 했던 그 실력과 독심과 과거에 운동을 많이 했던 체력으로 장장 2400마일을 질주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회장이라는 직분은 그 만큼 큰 힘을 발휘하게끔 만든다.

함께 운전을 도와 준, 높은 숲속을 달려 준 백정현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백옥자 국장 또한 한 목 거들었다는 마음이 여행의 피곤함도 잊은채 서울대 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미소짓는다. **취재=백옥자 총무국장(음대 71)**



미주동창회 임원진이 샌프란시스코 유명 맛집은 세프 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지부 임원진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워싱턴주 지부 임헌민 회장 집에서 열린 저녁 만찬에 김재훈 동문 부인이 만들어온 안주. 서울대 미주동창회보를 올려 만든 깃발에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워싱턴주를 방문해 장학금 2000불을 지원했다. 미주동창회장 지명 장학생을 포함해 선발된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워싱턴주 지부 임헌민 회장 집에서 열린 저녁 만찬에 자리를 함께 한 동문들.



아란 클레어 정



앨런 동진 리



이븐 리



이운서



제레미 서훈 김

SNUAA 스칼러 20대1 경쟁률 뚫고 5명 선정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는 미국내 한국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SNUAA스칼러 장학생5명을 선발했다.

올해 시행된 SNUAA스칼러 장학 프로그램에는 모두 101명이 지원해 20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엄격한 심사 끝에 선발된 5명의 스칼러에게는 1인당 1만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8월30일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한홍택(공대 60, UCLA석좌교수) 박사는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출중한 장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이 장래 사회 각계에서 많은 공헌을 함으로써 모교의 명성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인 커뮤니티 최대 규모 1인당 1만불
미주 전역서 101명 지원, 엄격한 심사
8월30일 온라인 수여식, SNU 멤버로

10년안에 최소 100명의 장학생을 배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명 장학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8월30일 오후8시(동부시간)에 열린 온라인 시상식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의 이진형 교수가 참석해 기조 연설을 했고 관계자와 수상자는 물론, 가족과 동문들이 참석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상자는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 SNUAA네트워크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돼 서울대 동창회 가족이 된다.

올해 SNUAA 스칼러 장학 프로그램에는 미주내 곳곳에서 골고루 지원했다. 심사 대상이 된 적격 신청자 76명 중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가 단연 많아서 총 24명(32%)이 신청했고 이외 일리노이, 뉴저지가 각 9명, 텍사스 8명, 뉴욕 7명, 버지니아 5명으로 미주내 한인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재학중인 대학도 역시 크게 편중되지 않았다. 노스웨스턴이 6명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유엔 6명, 밴더빌트 4명,

스탠포드-UCLA가 각 3명으로 고르게 신청했다.

또한 절반이 훨씬 넘는 54명(71%)이 여러 대학에서 골고루 신청했다. 아울러 신청자의 재학년도 3학년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24명, 4학년이 14명, 1학년이 13명을 차지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리+로 워터 인프라스트럭처 장학금=앨런 동진 리(캘리포니아, MIT)

▶이상강 동창회장 장학금=아란 클레어 정(캘리포니아, 스미스칼리지)

▶한백 장학금=이븐 리(일리노이, UIUC)

▶고광고국화 장학금=제레미 서훈 김(뉴욕, 스탠포드)

▶삼익장학금=이운서(캘리포니아, USC)

장병희 편집위원



고국화 · 고광국 동문부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



노명호 16대 미주동창회장



한홍택 · 백훈 동문 부부

9명 장학위원이 세차례 거르며 최종 5명 선발

SNUAA 스칼러스 장학생 선발 과정

올해로 3번째를 맞는 SNUAA장학 프로그램의 선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동문들이 많아서 이번 장학생 5명을 선발한 과정을 소개한다.

우선 장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선발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원자의 학업 능력, 창의성, 성실성, 리더십, 기업가 정신, 직업 및 사회에 대한 잠재적 기여(Academic ability, creativity, integrity, leadership, entrepreneurship, and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profession and society) 여부다.

장학위원회는 지원과정에서 이미 지원자들로부터 이력서, 대학 성적증명서(1

학년의 경우 고교 성적표 포함), 자신의 미래 목표에 대한 800자 내외의 에세이를 받았다. 또한 학업 성과, 리더십,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2개의 추천서를 요구했다.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총 4번의 공식 미팅을 줌으로 가졌다.

우선 7월1일 신청자들의 제출 서류(6월 30일 마감)를 9명으로 구성된 평가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7월2일 첫 미팅에서 선발 과정과 수여식에 대해서 논의했다. 7월17일 두번째 미팅에서 첫번째 선발(라운드1)에서 선발된 인원(인원)에 대한 결과를 논의했다. 7월31일 세번째 미팅에

학업 능력 · 창의성 · 리더십 등 중시
스폰서와 논의해 지명 장학금 배분

서 두번째 선발(라운드2)에서 선발된 인원(인원)에 대해서 논의했고 장학금 스폰서와 연락해서 알맞은 장학금을 선정했다. 8월3일 수상자를 발표하며 수상 승낙서를 요청했다. 8월14일 4번째 미팅에서 수여식에 대해서 확정했다. 8월30일 줌으로 수여식을 가졌다.

평가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첫번째 선발(라운드1)은 76명의 신청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그룹1은 신청번호 1번 신청자부터 36번까지(평가자=신응남, 김용구(심사 중 타계), 김화진), 그룹2는 37-69(평가자=이준수, 이명자,

박평일), 그룹3은 70-101번 신청자(평가자=임준원, 최인숙, 한홍택)로 나눠 평가했다. 각 평가자는 자기 그룹에서 상위10명을 고른 후 이를 합하여 그룹 당 상위 10명을 선발했다.

두번째 선발(라운드2)은 우선, 각 그룹의 상위10명을 섞어서 30명짜리 통합그룹을 만들었다. 이 통합그룹에서 각 평가자가 상위 10명을 선발했다. 이들의 종합 점수를 계산하여 마지막 상위 5명을 선발하고 예비 1명을 선정했다. 지명장학금 배분은 5명의 선발자중 스폰서와 의논하여 결정했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미주동창회 두번째 다이아몬드 이사 탄생

뉴욕 조상근 동문 “힘 보태고 싶어” 10만불 기부 채웠다

조상근(법대69) 동문이 최근 5만 달러를 추가로 후원해 미주동창회 사상 2번째 다이아몬드 이사가 됐다. 이제까지 첫 번째 다이아몬드 이사는 고 고광선(공대 57) 동문이었다. 조 동문은 60년대 학번으로는 첫번째다.

조 동문은 1년만에 추가 후원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미주 동창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이상강 회장과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면서 “동창회에 조금 더 기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를 나왔다든 것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이래저래 직간접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 동문은 고교시절부터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업을 마쳤다. 그런데 서울대에 입학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큰 덕을 봤다는 것이다. 공납금 내고 생활비를 벌 수 있을 만큼 학교 덕을 톡톡히 봤는데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나눠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동창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동창회를 운영하려면 기금이 항상 모자랄텐데 능력이 있는 동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나 종신 이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쑥스러워 하는 것 같다”며 “선배나 후배들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앞장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물론 조 동문도 눈치를 보고 있다. 모교 장학재단을 세울 때 출연을 했고 출신 고교에도 도움을 주고 싶지만 아직 큰 규모의 기부는 미처 못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여러 환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정성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1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100원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만원을 낼 수 있는데도 천원도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의껏 자기가 가진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강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팬데믹 기간에 뉴욕 지부 동창회장을 하면서 100% 활동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가 후배들에 대한 얘기로 들어섰다.

요즘 후배들이 예전에 비해서 고생을 덜하다 보니 젊은 사람치고는 조금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음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걱정할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법대 출신으로 한마디를 더 엮었다. 이전 정부에서 서울대 법과대학을 없앴던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조 동문은 “법과대학원은 그저 전문 변호사를 만

드는 기관에 불과하게 됐다”며 “학문적으로 질이 굉장히 낮아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성공과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절대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정신 바짝 차려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에서 이사였으니 한국에서는 상무나 전무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사로 7년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현실은 달랐다. 합작사 중역들이 상대, 법대, 공대 출신인데 그들의 상위 직급으로 나이가 아래인 조 동문이 가게 되니 반대가 심했

그러면서 조 동문이 배운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어날 기회가 더 많다.

둘째, 사업은 결국 학교에서 배운 전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셋째,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사업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대학에서 배운 것을 이용하건 전공을 살려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배우게 된다. 조 동문의 경우, 법대에서 배운 것과 상관없는 구매를 담당했는데 결국 구매 담당 임원이 되기도 했다. 나중에 사업할 때 구매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배우면서 일했다.

넷째, 이왕이면 큰 것을 했다. 처음 뛰어난 것이 조선이였다. 배를 만드는 것에 아무런 지식이 없었는데도 배워서 했고 길이 열렸다. 나아가서 원자력 발전소도 아이템에 넣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논문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 알게 됐다. 사업을 진행하는 요소요소에서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가능하면 실패도 해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이가 좋다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에서는 봉급쟁이로는 돈을 못 번다. 아마도 조 동문이 봉급을 받으며 일했다면 자기 사업보다 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두 자녀를 모두 사립학교에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

여섯째, 일단 시작했으면 과감하게 뒤돌아 보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한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비즈니스라고 해도 노하우가 있다. 그것을 배워서 나아가면 성공한다.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상강 회장 집행부에 대해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동창회보가 ‘서울대인’이라는 한 지붕 아래 단합하는 모습,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선후배가 삶의 노하우를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이 이어지는 징검다리 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상근 동문은 법대 졸업 후 대우에 입사해 주재원 생활을 했고 이후 냉동 기술 세계 1위의 미국 회사인 ‘캐리어’사에서 아시아 담당 이사를 거쳐 본사 구매 담당 이사로 활약했다. 1991년 무역회사인 AMCO Inc를 미국에 설립했고 석유추진을 비롯한 해양 구조물 프로젝트에 쓰이는 부품과 자재 등을 취급했다. 특히 한국을 위해서는 영광 3-6호기, 울진 3-6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자재를 공급해 기여하기도 했다. 이외 한국에서 7여 년간 부동산의 투자와 경영에 종사하기도 했다.

조 동문은 뉴욕 동창회장 재임 당시 마침 팬데믹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져 동창회 활동을 마음만큼 많이 못했다며 이번에 추가로 5만달러를 더 기부해 다이아몬드 이사가 됐다. **장병희 편집위원**



조상근 동문이 지난 6월 개최된 제 33차 평의위원회에 참석 중 중간 기착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 뉴욕 동창회장하면서
마음만큼 활동하지 못한 것 아쉬워

학교 덕 봤으니 동창회 기부는 당연
100원 낼 형편이면 100원 내면 돼

사업 성공? 시작했으면 돌아보지 말고
노하우 배우면서 열심·최선 다 해야지”

가지고 일어서면 언젠가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은 하지만 창피한 것은 아닙니다.”

주제를 조금 바꿨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왔는데 언제부터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조언을 요청했다.

“저는 사업을 몇 살에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다. 당시는 한참 성장기이니까 진급을 빨리 했잖아요. 제가 차장으로 부서장이 돼 부장 일을 했는데 그때가 32살이 됐습다. 33세에 미국 회사에 이사로 들어갔습다.”

싱가포르에서 3년, 미국 본사에 3년을 근무하고 한국에 있는 합작 회사에 파견

다. 미국 모기업도 조율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조 동문은 회사를 그만뒀다. 그래서 조 동문은 결국 41세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막상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우 걱정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은 가는 것이니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막연했다. 하지만 40대 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다. 넘어서면 일어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젊을수록 좋을 것 같았고 그래서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한 것이다.

“황혼기 동문 위한 영적인 칼럼 있으면 좋겠어요”

실버이사 된 강재호 동문(상대 57)

“동창회보 보는 즐거움”
다음 목표는 골드이사

북가주 지부 강재호 동문(상대 57입학)이 최근 실버이사가 됐다.

강 동문은 “이미 은퇴한 지도 20년이 넘어서 하루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다”며 “일상의 낙중 하나가 매달 동창회보를 보는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상이 풍요롭기 위해서 대단한 목표는 아니지만 목표가 있어야 했다”면서 “종신 이사가 된 후에 실버 이사가 목표였고 나중에 꼭 골드이사도 되겠다”고 밝혔다.

강 동문은 대학을 졸업하고 화학회사

를 10년 넘게 다니다가 1973년에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민왔다. 강 동문 부부는 북가주 한 곳에서만 드럭스토어를 35년간 운영하고 2002년에 은퇴했다. 특히 두 아들 모두 잘 키워 이를 것은 다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큰 아들 흥석씨는 CPA가 됐고 둘째 아들 흥일씨도 부동산업계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옆에서 같이 고생해 준 부인 강옥희 여사에게는 “항상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다며 고맙다”는 말씀도 빼놓지 않았다.

서울대 동창회보에 대해서는 황혼기에 있는 동문들이 많으니 동문들에게 의미 있는 영적인 칼럼도 실었으면 좋겠다고



강재호 동문의 가족사진.

제안했다. 또한 4.19와 6.25를 겪은 동문들의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를 연재하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문들

중에는 학자나 교수, 목사도 많아서 무궁무진한 소스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병희 편집위원

3대가 모여 자축한 이민 50주년 ... “꿈 이뤄 감사”

메릴랜드 한인상 받은 오광동(공대 52) 동문 가족·친척 등 40여명 공원에 모여 기념 파티

메릴랜드의 올드타이머로 이민 1세대인 오광동(공대 52) 전 하워드카운티 한인시니어센터 회장(92)이 가족들과 함께 ‘이민 50주년 기념’ 파티를 갖고 자축했다.

지난 7월27일 엘리콧시티 소재 센테니얼 공원에서 열린 파티에는 2남 1녀 자녀 및 손주, 친척 등 40여 명과 벤델교회 백신종 목사와 박민재 목사 등이 참석, 이민 50주년을 축하하며 대대손손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오 전 회장은 1961년 오순규 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두고, 한국 정부 과학기술처, 흥익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임하다 1974년 도미했다.

오 전 회장은 “자녀 교육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힘든 이민 길에 올랐다”며 “미국으로 이주할 때 5명의 가족이 지금은 손주 7명과 함께 15명의 큰 식구가 됐다”고 미소를 지었다. 오 전 회장은 “70년대 초창기 이민세대로 어렵고 고생도 많았지만, 자녀와 손주들이



오광동 동문과 부인 오순규씨.

연방정부 공무원, 치과의사, 약사, 박사, 의대생 등으로 잘 성장해줘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우리 가족과 함께해 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인 오순규 씨는 “올해는 이민 50주년과 겸해 결혼 64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며 “노년까지 건강을 유지하여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축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오광동 전 하워드카운티시니어센터 회장과 가족들이 이민 5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전했다.

백신종 목사는 “자녀, 자손들을 위한 오광동 전 회장님 부부의 오랜 헌신과 수고에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물론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축복했다.

오광동 전 회장은 유니온 메모리얼 병원에서 25년간 병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워싱턴 황해도민회

장, 이북도민회장, 벤델시니어아카데미 교무 등을 역임했다

오 전 회장은 하워드시니어센터 창립 멤버로 2대와 7대, 두 번에 걸쳐 회장을 맡아 봉사하며 시니어센터가 모범적 단체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하워드시니어센터 편집장으로 ‘15주년 기념 화보집’을 발간한 바 있다. 2017년에는 메릴랜드한인회의 ‘자랑스런 메릴랜드 한인상’을 수상했다.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보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Tel: 818-395-1967 | Email: snuaausa17@gmail.com

암 투병 김정선 동문, 암환자 어린이 위한 전시회

르완다 암환자 치료 봉사
다나-파버 암연구소 지원
기금 모금 전시회 열어

암 투병중인 뉴잉글랜드 지부 김정선 동문(문리대 66)이 지난 8월말까지 암환자 어린이를 위한 미술 전시회를 가져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김 동문은 최근 3년간 함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 격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취미활동으로 유화를 그려온 김정선 동문은 최근 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한동안 내려놓았던 붓을 다시 들었다. 특히 자신이 치료받고 있는 다나-파버 암연구소가 아프리카 르완다의 어린이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 기금 모금 전시회를 열었다.

그는 이 연구소에서 종양전문의 S 슬레이터 박사로부터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다.

슬레이터 박사 팀은 르완다에서 소아암 환자의 10~20%를 포함하여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비싼 암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고 기금도 부족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했다.

김정선 동문의 기금 모금 전시회에는 부인 조순래씨도 함께 해 자신이 그린 그림을 도네이션했다.



김정선 동문이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시회는 매사추세츠 폭스보로 도서관에서 지난 8월7일부터 30일까지 열렸으며 뉴욕 신음남 (농대 70) 제15대 미주동창회장을 비롯해 동문들의 호응으로 거의 다 팔렸다.

김정선 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를 받고 대우실업을 다녔다. 7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와서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산업 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테네시 주립,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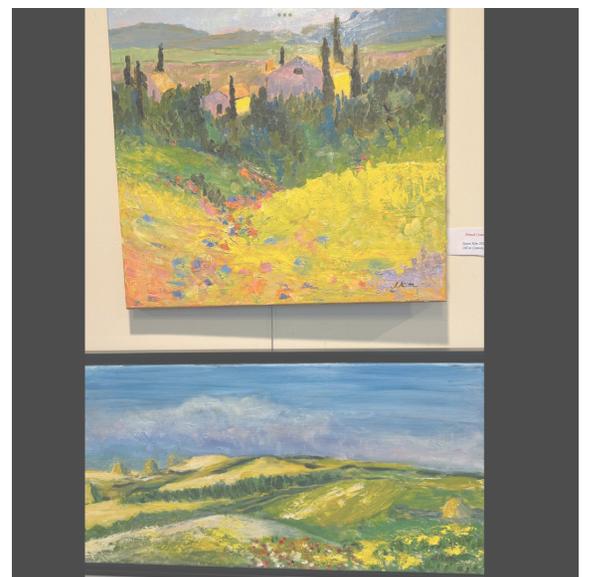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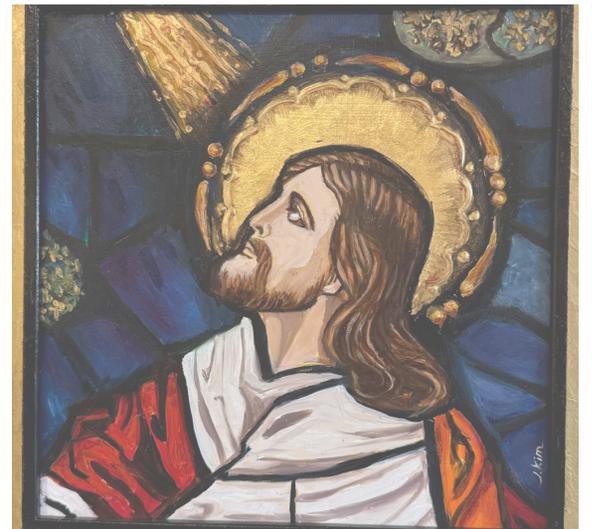
90년대에는 교육연구회사(Systemic Research Inc.)를 세워 대표와 회장으로 20년 이상 연방정부와 K-12 스템 교육프로그램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아울러 연구를 위해 미국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은퇴 후에도 세계 여행을 통해 새로운 인문학 공부를 지속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보스턴 한인교회 은퇴 장로이고, 2세 교육을 위해서 보스턴 한국학교를 설립해 교장과 이사를 역임했다.

또한 뉴잉글랜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장을 맡기도 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김정선 동문이 그려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들.

시애틀 변종혜 동문 자서전 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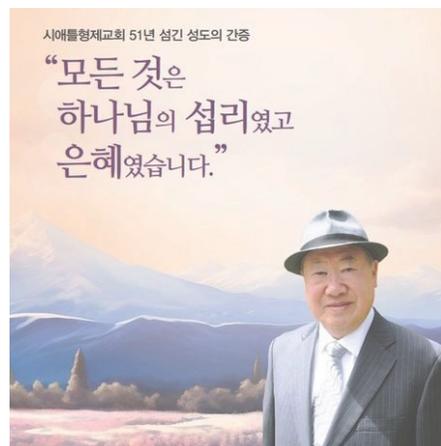
시애틀 한인 교육에 헌신
2022년 대통령 표창 수상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한인 차세대 및 노인들의 교육에 헌신해 온 변종혜(법대 58) 동문이 최근 한국의 가온미디어 출판사를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했다.

변 동문은 이 책에 어린시절과 학창시절, 그리고 이민생활 등 자신의 85년 삶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제목에서 보듯 충실한 크리스천의 삶도 담았다.

변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근무하다 1973년 시애틀로 이민 왔다. 변 동문의 할아버지는 1953년 10월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됐던 한미상호방위조약 당시 한국측 대표로 서명한 변영태 외무장관의 사촌 형제다.

변 동문은 1996년 시애틀 지역 한인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국학교



를 통합해 이를 운영하는 워싱턴주 한미교육문화재단을 창립하고 이사를 맡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봉사를 하고 있고 2005년에는 한인 시니어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실버대학을 창립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제16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열린 한국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강원 교수의 미국 귀국을 앞두고 지난 8월4일 서울대 동창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동문들이 송별회를 열고 이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우수 과학자로 한국 갔던 이강원 교수 귀향

카이스트 초빙교수로
교통 관련 공동 연구

지난해 대한민국 연구재단의 해외 우수 과학자로 초청돼 한국 카이스트 초빙 교수로 떠났던 이강원(공대 66) 로 드 아일랜드대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가 1년간의 공동연구 “Sustainabl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ystem for Carbon Neutrality”를 무사

히 마치고 8월 중순 로드아일랜드로 돌아왔다.

이강원 교수는 “대전, 세종, 충남에 있는 서울대 동문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게 지낸 1년”이라고 전했다.

이강원 교수는 뉴잉글랜드 지부 동문단체 카톡방에 그린 한국 산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한국에서의 일상을 간간히 올려 많은 동문들의 향수를 달래주기도 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설립, 어려운 국가들에 도움의 손길

삶과 추억

고 이송희(간호학 46) 동문은

고 이송희(간호학 46) 동문은 간호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서울대병원 재건 및 글로벌 간호인력 양성에 헌신했다. 전투장교가 아닌데도 무공훈장을 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부상군인들을 돌봤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터다.

근대의 간호사는 크림리아 전쟁(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과 벌인 전쟁) 때 간호사로 종군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로부터 비롯됐다. 이 동문 역시 역사의 한 증인으로 6·25의 참혹한 실상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이 동문은 평북 신의주에서 기독교 가정의 6남매 중 막내로 자랐다. 해방이 됐지만 북에 김일성이 주도한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온가족이 38선을 넘는다.

혼란한 시기에도 공부에 관한 열정은 남달라 서울대 의과대학 부속 간호학교(간호대 전신)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졸업 후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취업이 됐지만 얼마 안돼 전쟁이 터졌다. 미처 피란을 가지 못해 병원에 머물러 있었던 그는 어느날 자고 나니 대학병원 시계탑 앞에 국군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놓여있었다고 증언했다.

국군 부상병들이 총살을 당한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유엔군의 수도 서울 진입이 임박하자 인민군은 모든 의료인력을 청량리역에 집합시켜 북으로 끌고 가려 했다. 이 동문은 강제 북송되기 직전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해 병



고 이송희 동문.

원에 복귀했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그는 국군간호장교에 지원한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배치된 곳은 마산의 육군병원. 부상병을 살리기 위해선 많은 양의 수혈이 필요한데 대부분 미국인들이 헌혈한 피가 병원으로 공수돼 왔다. 그걸 보고 미국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가 훗날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다.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이 동문은 미국연수프로그램 시험에 당당히 합격, 4개월 가량 텍사스의 브루크 육군메디컬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 당시의 경험이 전역 후 서울대 병원을 재건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문은 대학병원 근무 중 서울대 재건복구사업인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선발돼 1년간 미네소타대에서 유학하며 간호행정을 공부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도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당시 열악한 간호환경을 개선하는



지난 8월 17일 LA 인근 웨스트민스터의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열린 이송희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 이사장 추도식에 참석한 서울대 동문들. 추도식에는 총영사관이 대통령 조기를 보내왔다.

데 힘썼다.

그가 미국 이민길에 오른 것은 1975년.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자녀 셋을 키웠다.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그저 믿음을 심어준 것 밖에는 없다”고 회고했는데 모두 훌륭히 성장했다. 아들은 예일대에 입학, 의사가 됐고 사위 둘도 UC 버클리를 나와 선교사의 길을 걸었다.

이 동문이 본격적으로 봉사의 길에 나선 것은 1997년 은퇴한 후다. 이듬해 4월 LA에서 세계기독교간호재단(WCNF)을 창설,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그가 맨 먼저 한 프로젝트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간호대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 총 소요경비는 200만 달러가 넘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다. 걱정 안한다”고 했다.

이 동문은 2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

간호대 건축비 전액을 지원했다. 이 동문은 생전에 “연변과기대 간호대학이 조선족 간호 인재를 양성하고 수준높은 간호지도자를 배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 다음엔 동남아로 눈을 돌렸다.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에 간호대(2006년)와 간호학 연구소 및 비전센터(2007년) 설립을 지원한 것.

아프리카에도 도움의 손길을 폈다.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에 간호학교(2013년)를 개설했으며 교수진을 파견하고 실습기자재를 지원했다.

이 동문은 2024년 7월 10일 9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을 기리는 추도식이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서울대 간호대학과 간호대 동창회, 연변과기대 간호학부 동창회,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간호대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하와이대에 한국학 연구소 설립 ... 한국학 세계에 알린 선구자

삶과 추억

하와이대 고 강희웅 명예교수

하와이대학교 강희웅 명예교수가 7월 16일 한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92세.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7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강희웅 명예교수는 한국 역사, 한국학을 세계에 알리는 선봉장의 역할을 한 석학으로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가을경 한국학연구소에서 추모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고인은 1931년 한국 진해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하다 1951년 전시연합대학교에서 대학 교육을 시작했다. 한국전쟁 동안 통역으로 복무했고 전쟁 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고대와 중세를 공부하다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56년 베리아 대학에서 학사 학위

를 받았다. 1958년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64년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 툼레도 대학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

고인은 1965년 하와이 대학교 역사학과에 부임하며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미국내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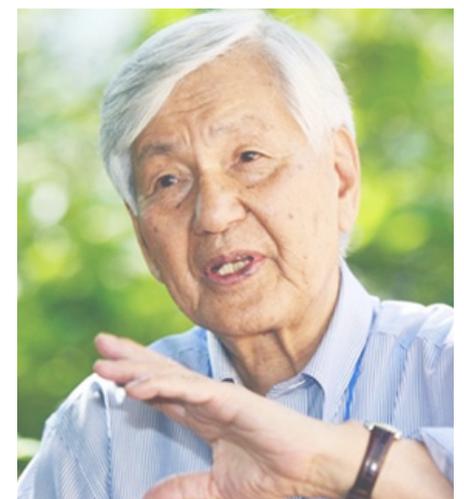
1970년 당시 하와이대학교 역사학 교수진에 합류한 최영호 박사(지난 5월 15일 별세)와 함께 하와이 대학교는 미국에서 한국사 박사 학위를 수여한 최초의 대학이 되었다.

고인은 1971년 호놀룰루에서 한국학에 관한 역사적인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

며 하와이대학교를 명실상부 세계속의 한국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1972년 대학내 한국학연구소 설립의 명분을 제공하며 고인 스스로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1990년에는 한국과 북한의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유일한 글로벌 한국학 기관인 국제한국학회를 설립하는데 기여했다. 2003년 은퇴한 후에도 고인은 세계적으로 한국학을 발전시키는데 전념했다.

고인은 고려 초기 중국 공무원 제도의 사례라는 책을 집필했고 고인의 제자이자 역시 한국학연구소 소장직을 역임한 에드워드 슐츠 명예 교수와 삼국사기의 신라연보, 삼국사기의 고구려연보, 고



려사기의 분질, 한국 전통의 근원 등 근대 이전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서적 중 일부를 번역, 출간했다.

인간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유전자 때문이라고?

뉴욕 독서 클럽,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읽고 토론회

서울대 뉴욕 북클럽은 7월 18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주제로 1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열띤 정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발제자인 김해암(의대 52) 교수가 진화 생물학에 대한 총론에 해당되는 주제를 다루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밝힌 그의 주장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한 종에서 진화되었다'는, 인류문명 역사에 굳건히 자리잡아 온 '신'의 존재에 대한 전면 부정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보다 더 큰 충격을 던졌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며 커다란 논란을 불러온 바가 있었다.

그 후 1970년대에 발견한 DNA 유전자 존재관련, 생물학의 발전된 주장을 발표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의한, 인간과 모든 생명 개체는 영혼 불멸한 유전자의 단순한 운반체라는 주장에 대한, 학계의 찬반론란도 거세었다. 다윈과 도킨스 두 학자 모두 진화 생물학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리한 주장을 후대 과학자들이 밝혀주기를 기대했었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양군식(음대 82) 위원이 책 제 10장에 나오는 '내 등을 굽어줘, 나는 네 등위에 탈테니'의 소재목으로 시작되는, 개체의 집단형성과 상호 호혜주의가 주는 공동이익에 대한 예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즉, 하이어나가 먹이사냥을 집단적으로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먹이를 구하는 방법과 펭귄이 추운 겨울 함께 모여 서로 맞대어서 열을 보존하는 행위, 그리고 새가 하늘을 날 때 가장 저항을 적게 받는 V자 모형의 편대 비행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포식자의 공격을 동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계음을 내는 이타적 행동과 초식 동물 중 집단의 대열을 이탈치 않는 이동행렬을 통해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약한 개체를 보호하는 행동을 설명했다.

그리고 악어와 악어새, 대형 어류의 표면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작은 어류나 새우가 먹으며 공존하는 호혜적 이타주의 행동도 존재함을 밝히고 다윈과 도킨스의 이기적 행동에 의해 생존한다

는 단순한 연구발표를 뛰어넘는 호혜적 이타주의 행동도 존재함을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신응남(농대 70) 15대 회장은 도킨스가 새로운 학술로 발표한 문화적 유전자라고 명칭한 밈(Meme)에 대한 이론을 요약 발표했다.

그리스어 어근 미멤(mimeme)에서 유래한 밈(meme)은 우리가 사후에 남길 수 있는 전통적 유전자와 문화적 유전자 밈(Meme)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몸은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

나 강조하고 싶은 특성은 가끔은 이기적 유전자의 명령에 반항하여 행동하는 힘, 또한 우리를 문화적으로 교화시킨 이기적 밈을 거부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진화의 예를 제대로 보여 주는 것은 인간 종이다. 언어, 의식과 관습, 예술과 건축, 기술과 공학 등 이들 모두는 역사를 통하여 속도가 빠른 유전적 진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화한다.

생물학적 유전자는 적어도 100만 년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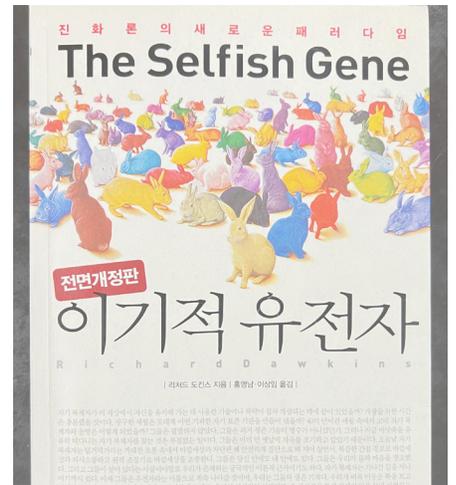
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자연은 오로지 남을 죽여야만 생존하는 잔인한 경기장이 아니라 공동체적 협력의 실험 무대이기도 하다. 협력 전략으로 생존하는 데 성공한 동물 종들은 많다.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 말고는 어떤 종 어떤 개체도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특정한 행동방식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협력이 생존에 유리한 환경에서는 자연선택에 따라 결과적으로 협력 행동을 부추기는 유전자가 퍼졌고, 또한 생



뉴욕 독서클럽 동문들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토론회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책 '이기적 유전자' 표지.

인간은 유전자를 후세에 전승하는 생존기계 이타적 행위도 선한 본성에서 나온게 아니라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하나의 방식

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난다. 유전자든 밈이든 단순한 자기 복제자는 당장 눈앞의 이기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롭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서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따질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다. 유전자 자체는 의식이 없는 맹목적인 자기 복제자 일뿐이다.

하지만 밈에 의해 진화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선견지명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위로 나이를 헤아려야 할 정도로 오래 생존 하는, 끝없이 자기를 복제하면서 여러 생존기계의 몸을 옮겨 다니는, 네 가지 염기가 특수한 순서로 이어진, 충분히 작아서 잘 흩어지지 않는 염색체 조각이다. 목적의식이나 지향 같은 건 없다. 끝없이 자기를 복제하면서 온갖 생존기계를 만들 따름이다.

유전자의 생존기계는 성장해서 짝을 찾아 자손을 낳고 죽으라는 명령을 수행한다. 그런 면에서 모든 생존기계는 이기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같은 종의 다른 개체나 다른 종의 개체

존에 유리한 환경에서는 결과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해밀턴' 모델은 이타 행동이 가족과 친족 안에서 먼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자식은 부모의 유전자를 절반씩 지니고 있다. 자신의 유전자를 자식만큼 많이 가진 개체는 세상에 없다. 부모한테는 자식이 자신만큼 소중하다. 형제자매의 유전 연관도는 50퍼센트고 사촌끼리는 12.5퍼센트다. 인간의 이타 행동은 유전 연관도가 높은 부모자식과 형제자매 사이에서 시작해 가까운 친족과 먼 친척으로 퍼져 나간다. 이것이 가족주의 또는 혈연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과 감정의 생물학적, 유전학적 기초다. 서울대 북클럽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다음 토론회의 교재로 선정하고, 뉴욕의 7월 무더위 속 토론회를 끝마쳤다.

글=신응남(농대 70) 15대 미주동창회장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뉴욕 동문 150여명 모처럼 한자리 ... 화합 다졌다



뉴욕 동창회 간호대 동문들.



뉴욕 동창회 의대 동문들.



뉴욕 동창회 사범대 동문들.



뉴욕 동창회 공대 동문들.



뉴욕 동창회 약대 동문들.

총회 열고 46대 회장단 인준
골든클럽도 함께 가족 야유회
80·90학번 동문들 대거 참여

뉴욕 동창회(회장 김정필)는 지난 8월 22일 뉴욕 동창회 내의 시니어 모임인 골든 클럽(회장 홍종만)과 함께 뉴저지에 위치한 Alpine Pavillion에서 Family Picnic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24년 46대 회장단의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를 겸한 동문 가족 야유회 행사인 지라 예년과 달리 1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야유회는 46대 회장단의 임기 첫 행사로, 임시총회도 개최하였는데 1부 순서로는 46대 임원 인준을 거친 집행부가 소개되었다. 정해민 고문은 46대 뉴욕지역 동창회 출범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무언가 째뼉하고 오물을 뒤집어쓴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신임 회장과 집행부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경쾌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날씨처럼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 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집행부 80학번 젊은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한다” 고 전했다.

이어 권정덕 이사장은 “의대 동문인 아내와 70년대부터 서울 의대 동창회에 참여했다” 면서 의대를 졸업 한지 60 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뉴욕 동창회 내홍의 시기를 지난 뒤, 김회장을 돕기 위해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면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동문은 지난 달 일면을 장식한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를 꼭 읽으시라는 당부도 주셨다.

한식 부페로 준비된 2부 점심 식사시간에는 허드슨 강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편안한 식사를 즐겼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수많은 참석인원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80학번 동문들이 식사 도우미를 자처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자, 참석자들은 보다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3부 순서로는 강병승 행사국장이 진행을 맡아 잔치마당이 진행되었는데 미리 나눠준 질문지에 따라 동문들은 각자 개인 소개 시간을 가졌다. 재치 있는 대답을 한 동문에게는 윤자영 동문이 후원한 상품이 선물로 증정되었다. 음대 동문들이 나와서 이구동성 게임을 할 때에는 푸짐한 상품 탓인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80학번이후 동문들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다. 심지어 90학번 세대도 대거 참여하여 마치 3대 가족이 모인 느낌이었다.

단체 사진을 찍기도 벅찬 인원이 몰린 이번 행사에는 참석한 인원만큼 후원도 많았다. 떡과 수박을 푸짐하게 준비해온 우규환 동문 가족 덕분에 더욱 풍성한 식탁이 되었으며 전임 미주 총회장이었던 신응남 동문의 선풍기 10개와 권정덕 이사장의 수건 협찬, 윤자영 동문의 미용상품 등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었다.

동창회 행사에 처음 참석했다는 송란(음대 81), 조경희(음대 86) 동문은 “오랜만에 반가운 동창들을 만나니 너무나 즐거웠다. 다음에도 꼭 참석하겠다” 며 행사 뒷일을 열심히 도왔다. 김정필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뉴욕 동창회 내에는 열정을 갖고 봉사하는 숨은 일꾼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면서 9월과 11월 행사에도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취재=이영주(농생대 83·편집위원)



뉴욕 동창회 농대 동문들.



뉴욕 동창회 음대 동문들.



뉴욕동창회장과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한 이진구 동문의 손자가 이날 행사에 참여해 하모니카를 불어 동문 어르신들의 박수를 받았다.



뉴욕 동창회 집행부 임원들.

멋진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백옥자 음대 71입 ♥ 김경숙 식품영양학과 70입
원정윤 농대 89입 ♥ 이만택 의대 52입 ♥ 조무상 법학과 70입 ♥ 한귀희 회화과 68입

서울대에

천원의 식사는 학생들이 한끼 천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의



천원의 식사에 참여하신 모든 기부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너 월에 기록합니다

이름을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간단 참여신청서를 찍어 ☎ 213-435-1974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새겨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은(는)

매월 기부액 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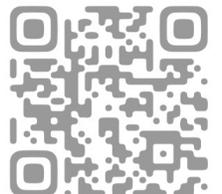
천원의 식사 후원에 참여합니다 ♥

휴대폰 번호

학과 년 입학

이 특별한 벽에 기부자님의 이름과 함께 나눔의 뜻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미시간 지부 설립 2주년을 맞아 고광국, 안제모, 박용화, 이선희 원로 선배(왼쪽부터)들과 이광진 지부 회장이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오른쪽은 동문들이 물풍선 받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설립 2년’ 이렇게 좋은 동문회 없었으면 어쩔 뻔

미시간 지부 총회 및 피크닉, 초대 이광진 회장 연임

서울대학교 동창회 미시간 지부에서는 2024년 7월 13일 (토)에 총 48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Island Lake 파크에 모여 화창한 날씨속에 총회 및 피크닉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께서는 삼삼오오 모였고 이야기 꽃이 끝도 없이 피어났다.

먼저 시작된 총회는 서울대학교 교가를 다같이 우렁차게 부르며 시작하였고, 총무 이호정(음대 81) 동문이 이사 및 임원 소개를 하였고, 이어 회장 이광진(공대 81) 동문이 지난 1년간의 행사와 회계보고 및 고 박사님 장학금과 새로 신설된 장학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2024년 6.1~6.8일간에 있었던 서울대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크루즈) 행사에 참여하셨던 고광국(화공 54), 고국화(화공 56), 조병권(공대 64) 이사님 중에서 조병권 이사님께서 평의원회에서 협의되었던 사항들을 소개해주셨다.

미시간 지부의 현재 제 1대 임원단의 임기가 이번 총회로서 종료되어 bylaws에 따라 차기 2대 회장 및 감사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차기 회장 및 감사 후보로는 임원진 및 이사회에서 제 1대 이광진회장과 박기완(농대 86) 감사의 연임이 추천되었고, 이는 총회에 참

석한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재가되었다. 이어서 동문들이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가졌는데 50학번 선배님들로부터 시작되어 90학번 동문들까지 소개를 마친 후 강형준(자유전공학부 10) 및 이상현(공대 10) 동문의 소개가 있었는데 미시간 지부 행사에 10학번이 참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맛있는 점심식사후에는 서울대학교 동창회 미시간 지부 설립 2주년을 맞아 하여 케이크 커팅 예식을 가졌고, 참가자 중 최고령이신 박용화(의대 52)동문께서 커팅을 해주셨다.

이후 신미나(사범대 91) 동문의 지도로 큐피드 셔플에 맞추어 그룹댄스모임을 끝 후 신미나, 최명동(사범대 대학원 98) 동문의 지도하에 동문들은 짜장팀과 짬뽕팀으로 나누어 공굴려 받기, 물풍선 받기, 골프 칩샷 등 재미있는 게임을 하였다.

무더운 날씨였으나 파크 쉼터에 우거진 나무와 바로 옆의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더불어 열음에 재워두었던 수박을 먹으며 동문들은 더위를 식힐 수 있었다.

이번 총회 및 피크닉에서 또하나의 기쁜 소식은 장병진(공대 61) 및 원윤식(음대 74) 동문님께서 종신이사로, 한숙



지난 7월13일 열린 총회 및 야외회에 참석한 미시간 동문들이 함께 모여 동문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영(문리 70) 동문님께서 일반이사로서 미시간 지부 이사회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미시간 지부에서는 다음 행사로서 8월 10일 (토) 3:00pm~5:30pm에 Southfield 시에 소재한 한인문화회관에서 장학금 수여식과 건강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장학금은 이미 미주 동창회 회보에도 소개된 바 있는 ‘고광국(화공 54), 고국화(화공 56) 박사님의 과학 및 공학 장학금’이며 5명의 학

생들에게 \$2,000씩 수여될 예정이다. 건강세미나는 “암의 정복은 가까이 왔는가 - 현대 의학의 대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종수(의대 69)박사님께서 발표해주실 예정이다. 장학금이 한인들의 자녀들이면 모두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유익한 건강정보를 교민사회와 나누자는 취지에서 본 행사는 동문이 아닌 분들에게도 참여 가능하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취재= 이광진 (공대 81) 지부 회장



미시간 지부 동문들 모임에 빠지지 않는 재미있는 게임들. 이날은 짜장과 짬뽕팀으로 나눠 공굴려 받기, 골프 칩샷, 물풍선 받기 게임을 하며 즐겼다.

서울서 온 간호대 후배들 밥 먹이고 격려한 선배들

시카고 지부

서울대-UIC 교류 협약 재학생 4명 연수 참여

서울대 간호대생들이 시카고를 연수 차 방문했다.

현재 2학년 및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이 여름방학을 이용, 6월 27일부터 7월 19일 까지 시카고 UIC에서 실시하는 하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UIC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2년 이래 간호대 재학생들을 선발, UIC 수업과 대학병

원 실습과정을 병행하는 과정이다. 미국 간호대학의 교육 및 병원 시스템을 배우면서 동시에 건문을 넓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시카고 간호대 동창회(회장 유기정 72입)는 7월13일 환영회를 열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Buffalo Grove 소재 한식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모처럼 접한 불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수십년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선배 동문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간호대 선배들은 식사 후 자리를 옮겨 디저트 및 커피를 마시며 학생들에게 동창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건네며 동문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재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카고의



시카고 동문들이 UIC에 연수하러 온 간호대 후배들에게 식사대접과 선물을 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여름 날씨와 경관이 너무도 좋았다며 훗날 재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간호대 선배들 역시 내일의 한국 간호계

를 이끌 후배들에게 축복과 기대를 전하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글=윤봉수(간호대 69)

서울대 찬양선교단 뉴욕 · 뉴저지 공연 성공적 개최

뉴욕 지부

선배 동문들 저녁 대접 격려 후배들 '야곱의 축복송' 화답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은 지난 1998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기독교 학생들로 창단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찬양사역을 해왔다. 찬양선교단은 지금까지 중국, 홍콩,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해외 지역을 다니며 여름 해외사역을 진행해 왔다.

올해로 창단 26 주년을 맞이하는 선교단은 이번 2024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10개 교회와 한국 양로원 2곳에서 12 차례의 선교 공연을 성공리

에 끝마쳤다.

이번 뉴욕 & 뉴저지 선교 일정에는 총 25 명의 단원들이 참가하였는데, 공연이 끝난 마지막 날에는 신응남 15대 미주동창회장의 주관으로 몇 분의 선배 동문들 후원을 받아 뉴욕 리틀벡 소재 미즈미 뷔페 식당에서 저녁을 대접하며 후배들의 찬양사역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원으로 격려를 보내준 이준행(공대 48), 최한용(농대 57), 강충무(사대 60), 신응남(농대 70), 김승호(공대 71) & 조상혁(대학원) 동문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모임을 주관한 신응남 15대 회장은 1971년 본교 관악 캠퍼스 기공식때 정희성 동문 시인의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이라는 헌정시 내용 중,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하라./ 민족의 위



뉴욕 동문들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선교 공연을 한 서울대 찬양선교단 후배들을 초청해 식사 대접을 하며 격려했다.

대한 상속자 / 아, 기리 빛날 서울대학교.. 시 구절을 전하며 서울대인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슴에 간직하고 보다 나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 헌신하는 동문들이 되기를 부탁했다. 후배들은 대접하는 선배들을 마주 바라보며, 손을 앞으로 내밀어 존경과 감

사의 마음을 담아 '야곱의 축복송'을 합창함으로 마음을 다해 아름답게 화답했다. 60, 70년의 긴 세월의 강을 뛰어넘어 서울대 선후배 동문으로 뜨겁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때는 7월 하순 어느 한여름 밤이었다.

글=신응남(농대 70) 15대 미주동창회장

커네티컷 지부

고 유시영 동문 부인, 동문들 초대하고 장학금도 전달



지난 8월 30일 고 유시영 동문 집에 커네티컷 지부(회장 박성훈) 동문 동문 12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 유시영 동문 부인 유은주 여사가 이번에도 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으며 박성훈 염지아 동문 부부 자녀에게 서울대 장학금으로 2000불을 전달했다. 뉴욕에서 신응남 전 미주동창회장 부부도 음식을 준비해 함께 했다. 오른쪽은 장학금을 주는 유은주 여사와 장학금을 받은 박성훈 동문 딸 박지호양.



더운 여름 잠잠했는데, 뉴욕 계동휘 동문 방문

플로리다 지부

플로리다 동창회의 활동은 계절을 많이 탄다. 여기가 더운 지방이라 여름이 오면 모든 활동이 조금 잠잠해지고 겨울에는 북쪽(East & Midwest) 지역에 사는 동문들이 이곳으로 많이 이동해서 동창회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름에는 철새들이 모두 떠난 철새 도래지처럼 조금은 삭막하게 느껴진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을 '스노우 버드'(snow birds)라고 부른다. 스노우 버드들은 보

통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 이곳으로 이동했다가 부활절이 지나면 이곳을 떠난다.

플로리다 동창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뉴욕 동창회의 골든 클럽과 공동으로 겨울에 남부 플로리다에서 친목 골프 행사를 몇 차례 가져왔다.

계동휘 동문(치대)도 스노우 버드 가운데 한 분인데 플로리다 동창회와 뉴욕 동창회 간의 친목 골프 모임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신 분이다. 계동휘 동문이 지난 7월에 이곳에 잠시 내려왔는데 계동휘 동문 환영 행사를 겸해서 조촐하게 '플로리다 하계 골프 대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김인형(미대), 계동휘(치대), 조동건(공대) 그리고 윤기향 지부 회장(법대).



워싱턴주 동문들이 지난 8월10일 피크닉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의 지부 방문을 맞아 임현민 회장 집에서 지부 임원진들과의 저녁 만찬이 있었다.

날씨 좋고 음식 맛있고 게임 재밌고 '가족 같은' 동문들

워싱턴주 지부

지난 8월 10일 레드먼드 시내에 있는 페리고 공원(Perrigo Park)에서 피크닉을 했는데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오랫동안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행사가 되었다. 날씨도 좋아서, 맑고 시원한 전형적인 시애틀의 여름 하루였다.

임현민 회장(공대 84) 부부, 이정관 총무(농대 83) 부부, 김재훈(공대 72) 부부, 이명자(간호대 74) 부부, 이원섭(농대 77) 부부, 이승윤(공대 90) 부부, 송은주(간호대 85) 부부가 2주 전 이명자 장학위원회 회장 댁에 모여 장학회 운영을 비롯해 피크닉 준비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였고, 여러가지 일을 각 동문들이 나누어 맡아 준비하였으며, 준비한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었다.

행사 날 아침 회계를 맡은 송은주 동문 부부가 1등으로 도착하여 차콜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11시 좀 넘어서는 LA에서 미주동창회 임원진 다섯 분(이상강 회장과 김경숙 사무총장 부부, 백정현 광고국장과 박혜옥 간사

피크닉에 장학금 수여식 미주동창회 임원진 방문 저녁에는 회장집서 만찬

부부, 백옥자 총무국장)이 자동차 운전으로 오레곤을 거쳐 피크닉 장소에 도착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이번 피크닉에서 워싱턴주 지부에 장학금 지원으로 2000불을 기부했다.

점심 식사에 앞서,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장학생으로 선발된 8명 중 매투이(코넬대 인간 건강 및 사회 -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오셨고), 이현우(에모리대 심리/신경과학), UW 한국학과에서 추천한 장학생 정순욱 박사과정 학생 부부, 조이 콕(디폴트대 컴퓨터 과학), 박효주(워싱턴 주립대 프리메드), 존김(워싱턴 주립대 컴퓨터) 등 6명이 가족과 함께 참가했다.

점심 식사는 차콜에 구운 핑치와 불고기, 그리고 각 동문이 준비해 온 맛있

고 다양한 음식들을 한껏 즐기며 즐거운 점심 식사를 하였다.

식사후 LA에서 방문한 미주동창회 임원진 소개가 있었고 신규 회원으로 김성진, 박윤재, 유주현, 박경호 영사 소개가 이어졌다.

새로운 동문 소개 중에서 유주현(미대 95 & 공대 2001) 부부가 서울대 교내 포스코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다 만난 인연으로 결혼하였다는 이야기와 박경호 영사 부부의 재미난 스피디했던 결혼 이야기가 동문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게임으로는 전통적인 빙고 게임에 더하여, 올해는 신발 던지기 게임을 하였다. 빙고 게임에서는 다들 상품을 타려고 경쟁적으로 노력하다보니 재미난 멘트가 많이 나와 더욱 즐거운 이벤트가 되었다.

신발 던지기는 왼발 오른발에 있는 신발을 발차기로 던져서 양궁 과녁처럼 생긴 곳에 10점 9점 8점 동그라미를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다들 너무 신이 나서 혼을 다해 게임하였고 그래서 더욱 흥겨웠다.

피크닉 상품으로는 미역, 옥수수차 등으로 모두 먹어서 소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만 준비하였으며 모든 부부 가족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양을 준비하여 다들 좋아하였다.

또한 행사를 마치면서 이승윤 동문이 시애틀에서 최근 새로이 시작한 사업(kitchneasy.com) 소개와 함께 사업 상품인 알루미늄제 식품 콘테이너를 가족마다 하나씩 증정하였다.

애프터 파티로 본부 임원진을 임현민 회장댁으로 초청하여 워싱턴주 동문회 활동을 많이 하는 임원 동문들과 함께 포도주와 함께 저녁 자리를 가졌다.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이 본부 현황과 미주 동창회의 앞날 그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했고 워싱턴주 동문회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저녁을 마치고 미주동창회 임원들이 친척이 산다는 Hansville (Hood canal 입구 지역)로 날이 어둡기 전에 떠나면서 아쉬운 이별을 하며 다음 이벤트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였다.

글=임현민(공대 84) 지부 회장



출발지 프랑스 생장 시내의 평온한 모습.



순례객들이 벗어던지고 간 배낭과 등산화들이 근사한 꽃화분으로 둔갑했다.



철의 십자가엔 사람들이 각자 고향에서 가져온 돌과 리본과 기념되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있다.

끝없는 밀밭 포도밭 꽃밭 사이를 걷고 또 걷고

제영혜 동문의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기

동문이 지난 5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 제영혜 동문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profile.php?id=1235774340)에 저널 형식으로 매일 여행기를 연재했다. 산티아고 순례길 출발에 앞서 마드리드, 그라나다, 세비아, 팜플로나 등 스페인 여행기를 지난 8월호에 소개한 데 이번 호에선 제영혜 동문의 본격 순례길 대장정을 따라가 본다.

많은 사람이 버킷리스트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다. 세계 일주만큼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남가주 제영혜(생과대 71)

9일째: 순례길 대장정 첫날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많은 루트 중 가장 많은 순례자들이 선호하고 가장 유명한 '프랑스길'의 시작은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한다.

해발 1430미터인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하는 가장 힘든 코스다. 어제 시내에 있는 순례길 사무실에 들러 크리덴살(순례길에서 통용되는 여권 같은 것)을 만들고 순례길을 걷는다는 등록도 마쳤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고 싶어한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안 보여 물어보니 역시 국가별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 1위는 단연 스페인이고 2위는 독일 3위가 미국이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1위 정도.

익히 들은대로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는게 가장 어려운 코스. 26km 1230m gain. 거의 16마일 4000ft gain인 셈이니 힘든 코스긴 하다.

프랑스 길 16km 스페인 길 10km 걸어 오늘은 아주 예쁜 자그마한 도시 론세스바예스에서 하루 묵는다. 순례자들을 위한 도시다. 세계 각처에서 모인 순례자들을 위한 호텔, 알베르게, 성당이 있고, 그 중 나의 관심을 사로잡은 건 "Casa Sabina", "Sabina bar"였다.

나의 카톨릭 본명인 사비나 성녀 이름을 딴 건물과 비즈니스가 있다니 너무 반가웠다.

산맥을 넘는다고 하나 산길은 아니고 대평원을 지나는 느낌. 때론 소 말 양들과 나란히 걸어가기도 하고, 저 아래 밭 밑에 깔린 안개구름, 반대편 산 능선엔 아직도 하얀 눈이 덮여있고, 정말 평온한 대자연 속에 파묻힌 하루.

10일째: 25km 종일 밀밭사이를 걷다

어제 28km에 이어 25km라니 과연 할수 있을까 걱정이다. 끝도 없는 밀밭이다. 이렇게 밀 생산이 많으니 빵이 맛있을 수 밖에. 밀빵을 끼니마다 내 놓는데 버터도 없고 오일&발사믹도 따라 나오지 않는다. 마른 빵에 얇게 썰은 돼지고기를 꺼서 먹기도 하고 우리네 전 같이 생선이나 소세이지를 잘게 썰어

계란에 부친 걸 넣어 먹기도 한다. 종일 초록 밀밭만 보며 걷다보니 앞뒤 좌우 아무도 없고 머리조차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녀이 빠진 느낌이다.

ALTO de Perdón (용서의 언덕)까지 13.5km, 330m gain 오르막이다. 날씨는 덥고 더이상은 못가겠다 싶을 때 만난 오랜 세월 지나온 순례자들의 형상을 철로 제작한 조형물을 만나.

사진 찍으면서 쉬고나니 또 걸을 기운이 생긴다. 이제 내리막길 3km 가면 점심 먹을 우테가에 닿는다. 3km라고는 하나 그 경사가 매우 심하고, 자갈이나 돌도 많아 꺾이나 어렵다. 일행 중 한 분은 삼년전 이 길을 걸었을 때 딱 여기에서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한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때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불현듯 통증이 다 사라져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고. 그 때의 경험을 다시 찾고싶어 지금 암 4기 환자의 몸으로 다시 이 길을 찾았다는 신앙고백을 듣다.

11일째: LA Rioja 주 23km 걷다

어제는 밀밭을, 오늘은 나헤라에서 부르고스까지 스페인 와인의 원고장을 지나다. 끝없는 포도나무밭을 양옆으로 장시간 걷다보니 와인에 취하는 기분이다. 4시에 부르고스에 비 예보가 있어 재촉해 발걸음을 옮긴다. 게다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부르고스 대성당도 봐야하니 맘이 바쁘다.

다행히 운도 좋게 23km를 끝내고 숙소로 향하는 차에 오르자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

한시간 남짓 달려 부르고스에 닿으니 날씨는 개이고 또 이 도시의 꽃의 축제



순례길 대장정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고 있는 제영혜 동문.

가 열려 온 시가가 사람들로 뽁뽁하다. 5층되는 시청 건물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온통 꽃으로 건물벽을 장식해 놓았다. 가는 도시마다 축제라니 이게 왜 복?

12일째 : 메세타 고원지대 통과하다

스페인을 공중에서 활영하면 중앙부에 우리나라 크기의 두배쯤 되는 큰 분지가 있다하고 수도 마드리드도 그 안에 있다 한다. 이름하여 메세타. 오늘은 까스트로헤리스에서 프로미스타까지 메세타 지역 26km를 걷다.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도 끝없는 지평선만 보인다. 메세타 고원 평원지대를 걸으며 많은 비를 먹고 새파랗게 잘 자란 밀밭을 지겹도록 지나가다 문득 바람에 일렁이는 밀의 파도에 눈이 쫓힌다. 어쩔 그냥 초록색이었던 밀들이 여러 다른 색깔로 휘날린다. 저런 색깔들을 표현하느라 애쓸 화가들의 파レット 생각도 나고, 폭신한 카펫 같아 뛰어들어 몸을 누이고도 싶다. 자연

을 혼자 오롯이 느끼는 하루.

13일째: 철의 십자가

저녁 먹을 때까지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밤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려니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다. 매일 쉬지않고 무리를 하다보니 이상이 오나보다. 오늘 어떻게 걸을까 난감하다. 일행들께 SOS 쳤더니 파스에 진통제에 복대까지 다 가져다 주셔서 감사하며 시작하다. 그 유명한 철의 십자가를 봐야하는데...

시작이 1180m 고산 중의 하나. 산맥 이름은 모르겠지만 1504m까지 올라가는 1km 경사길을 내리막 없이 줄곧 올라가야만 한다. 특히 오늘 길은 정말 예뻐서 허리 아픈 것도 잊어버린 채 한발한발 내딛다. 철의 십자가엔 앞서 지나간 사람들이 놓고 간 각자 고향에서 가져온 돌과 리본과 기념되는 물건들로 가득 쌓여있다.

나도 집에서 챙겨온 남편의 기념품 하나를 놓고 잠시 상념에 빠진다. 이제 정말 이 여행에서 돌아가면 이 남자 생각은 짝 잊어버려야지 하는 맘으로. 이 십자가 주변에 돌을 가져다 놓으면 살아온 세월의 죄와 짐을 벗어놓는다고 하는데 말인즉슨 가져온 돌의 무게 만큼만 사해진다나?

14일째: 허리가 너무 불편해 반이상은 버스에 남다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구부릴 수도 없을 정도로 거북하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머리만 복잡하다. 그 다음 숙소로 혼자 먼저 가 있어야 하나 아니면 버스 속에 남아있어야 하나 고민하다 정신력으로 버티자하고 따라나섬. 날씨도 안 좋아 비는 계속 세차게 오고 찬바람까지 불어 너무 춥다. 오늘 길은 오세브레이로에서 트리아카스텔라까지인데 해발 1196m에서 시작해 오르락 내리락 거듭하다 1332m를 찍고 다시 662m까지 내려가는 22km를 걸어야 했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다 안되면 말자는 맘으로 한발한발 내딛다.

첫 시작은 산이 높다보니 높은 나무가



곧게 뻗은 길 양옆 나무 아치 사이를 걷고 또 걷고....



0km 표지판이 있는 땅끝 마을에서 지나온 800km 대장정을 떠올려본다.



프랑스 순례길 대장정 수료증과 지나온 각 도시에서 받은 인증 스탬프.

아픈 허리 달래며 빛속 진흙탕길 또 걸으며 난...

울창한 길이어서 좋은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와 날 정화시키는 기분이다.

허리 핑계로 반 정도밖에 못 걸었더니 월 덜 피곤하다. 허리도 많이 좋아진듯 한데 내일은 또 어떨려나?

15일째: 프르토마린까지 22.5m

비도 오락가락 기온도 더웠다추웠다 변화무쌍했던 하루. 사리아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만 걸어도 100km 이상이라 완주했다는 증명서를 준다해서 사리아부터 부쩍 순례자들의 수가 대폭 늘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고요한 순례길은 없을 듯하다.

오늘의 시작은 우리네 시골 마을 느낌나는 담장길을 걸어 마을 하나를 지난다. 집집마다 키우는 소 닭 염소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똥냄새가 진동한다. 걷기 제일 재미없는 마을 길을 지나자 100km 표지판이 눈앞에 나타났다. 너무 반갑다. 이제 100km만 걸으면 끝이라니... 난 이 순례길의 마지막에서 서서 과연 무슨 맘으로 어떤 것을 느끼고 있을까? 걷기 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면 난 무엇을 할까? 용서를 구할까 아님 감사 기도를 하려나? 아직 답이 없다.

16일째: Palas de Rei까지 25.5km

연일 비 오고 춥고. 아침에 일어나니 도저히 걸을 상태가 아니다. 게다가 첫 5km는 상당한 오르막이라 해서 아예 단념하고 차안에 남기로 작정하다. 늪은 티 안 내고 아무리 버텨보려해도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

차로 이동 중 밖을 내다보니 비는 주룩주룩, 내 맘에도 계속 서글픈 눈물이 흐른다. 그렇게 버리고 벌러 왔는데 걷지도 못하고 차안 신세라니. 이 놈의 허리병이 야속하고, 순례길을 와 모든 걸 좀 내려놓겠다는데 왜 못 걷게 휘방 놓는 신도 야속하다.

차로 5km까지 이동은 눈깜짝할 사이인데 걸어오는 일행을 기다리며 차 속에 앉아 있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허리가 앉아 있는데도 힘들다. 예라 그냥 걷자. 죽기야 하겠나 이렇게 차안에 있는 거 보단 나올듯 싶어 걸어보기로 맘 먹다.

천천히 쉬지않고 걷다보면 허리가 풀리길 또 진통제 약발이 듣길 바라면서 강으로 버틴 하루. 이제 한 60km정도 남은 것 같다. 남은 사흘도 화팅!

17일째: 문어구이를 드디어 먹다

며칠째 날 괴롭히던 허리가 어제 저녁 일행 중 한분이 본인의 신장결석 증세에 대처하려고 받아온 마약 든 진통제를 나눠줘 먹은 덕분인지 LA 친구들의 합심 기도 덕인지 무지하게 좋아지다. 허리가 덜 아프니 그저 걷는 건 일도 아니다. 오늘도 26km 완주하다. 이제 내일 하루와 일요일날 반나절만 걸으면 대장정의 막이 내린다.

종일 비옷을 벗지 못하고 장대비를 맞으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걸었더니 두 엄지발가락에 물집이 잡히기 일초직전이다. 점심 먹을 때라도 신발과 양말을 벗고 열을 식혔어야 했는데 오늘은 기대했던 맛있는 문어며 가리비조개 먹느라 정신 팔려 등산화 벗을 생각을 못했다. 내일 하루 더 걸어야 하는데 견딜지 의문이다. 누가 돈 줄테니 비 속을 뚫고 26km 걸어오라 하면 어느 누가 하려고 할까? 수도 없이 많은 순례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왜 이 고생을 하느냐고.

18일째: O Pedrouzo까지 19km 걷다

(지면관계상 생략)

이제 내일이면 Santiago de Compostela 입성.

19일째: Santiago de Compostela 입성!!

다행히 아침엔 구름이 좀 끼긴 했어도 대성당 광장에 들어선 순간은 날씨 화창!

동료들끼리 서로 축하의 포옹을 나누고 기념 증명사진 찍기에 열심이다. 나도 멋진 연출을 위해 좀 뛰어보려도 다리에 힘이 없다.

마지막 50km구간은 Monte do gozo(기쁨의 언덕) 라는 넓은 언덕에서 멀리 아련히 대성당 꼭대기가 보이고 그 유명한 순례자 동상을 지나 유럽의 문 또는 산티아고 길의 문이라 하는 대형 아치를 지나 현대판 시가지 건물들 한가운데로 걸어 내려오는 구간이라 마지막 순례의 맛이 좀 사그라드는 기분.



드디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광장에 입성했다. 멋진 연출을 위해 한번 점프해봤다.

모자 쓰시고 지팡이 짚고 조개비 장식에 물주머니까지. 그리고 동상위엔 전설에 나오는 별이 빛나고 있다.

20일째: 서쪽끝 바다마을 관광

(지면관계상 생략)

스페인이어 아두! 언제 또 다시 올수 있을지 벌써 아쉽다. 푸짐한 음식과 맛있는 와인, 각국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의 걷는 모습은 잊어질 것 같지 않다.

21일째: 집으로 돌아가는 날

언제나 그렇듯 여행이라는 건 뭐니뭐니해도 내집이 제일 편하고 아늑하다는 걸 실감시켜주는 행위이다.

산티아고에서 마드리드로 또 로스앤젤스로 갈아타야하는데 그 복잡한 마드리드공항에서 두시간으로 잘 갈아탈 수 있을지 우려된다. 게이트까지 와서는 안도의 한숨. 보딩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태워줄 생각을 않는다. 시간은 말없이 흐르고, 기체에 문제가 있어 지연된다는 방송, 게이트가 바꿨다는 방송에 따라 300-400명 인원이 우루루 일루절루, 급기야 줄서있는 승객들 개개인이 캔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데 나에겐 이메일이 안 온다. 다시 항공사 고객센터 비스로 다 이동. 줄서서 날 LA까지 태워다 줄 비행기 스케줄 받고나니 오후 4시. 난 또 하루를 마드리드에 남아야 한다. 마이에미를 거쳐 LA로 결국 이틀뒤에나 집에 간다.

집을 다시 찾아 호텔 리무진으로 정해준 호텔 도착. 리무진에서 만난 한 분은 자기 부인은 9시 비행기로 멕시코 시티 경유해서 LA로, 자기는 하루 자고 런던 거쳐 LA로 가야해서 서로 헤어졌거나?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는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넘치는 오래오래 얘기거리를 만들 여행이다.

22일& 23일째: 돌아오는 길

길고 지루한 비행이 끝날 무렵 내려다보는 LA의 야경에 그저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안도의 감사함이 넘친다. 이제 평범한 나의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한다. 정신은 분명 멀쩡한데 몸이 온전치 못함이 많이 서글프다. 건강만큼은 내 또래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었는데 나이는 어쩔수 없다는 걸 실감하고 온 여행이라 더 서럽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번엔 그야말로 배낭 하나만 올려메고 이 순례길을 한번 또 도전해 보고 싶어지니 이게 웬 조화일까?



SNUAA 스칼라 영예의 수상자들

비즈니스 분석 부전공...수학 토너먼트 주최자



앨런 동진 리

(캘리포니아·MIT 컴퓨터사이언스 수학)
리+로 워터 인프라스트럭처 장학금

Alan Lee is a sophomore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studying Computer Science and Mathematics, with a minor in Business Analytics. He is heavily involved with campus

organizations as the Inventory Czar for the Harvard-MIT Math Tournament and Treasurer for the Sport Pistol Club. He is also a leadership team member for Asian Christian Fellowship, and a part of the Asian Dance Team and Undergraduate Mathematics Association.

In high school, he competed and ranked nationally in mathematics, chemistry, computing, and biology olympiads. Most notably, he was part of the USA team selection test group for the 2022 International Math Olympiad, and a perfect scorer on the AMC 10. He also founded

Homework Heroes, a volunteer organization dedicated to serving underprivileged students around the world in math, English and computer science. In his free time, he enjoys hiking with family and friends, traveling, competing in hackathons, and playing Pokemon Go.

He is currently at Samsung as a Software Engineering Intern, developing multiple Python scripts to facilitate efficient access to SSD characteristics using Non Volatile Memory Express protocols. These scripts will be used in product qualification testing for major customers such as Microsoft, Dell

and Meta.

Deeply passionate about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he is one of only three sophomore teaching assistants for MIT's Introduction to Algorithms course taken by more than 600 students annually. Continuing to pursue graduate coursework in Algorithms and Machine Learning, he aspires to become an algorithm and software developer in the future. Utilizing his critical thinking and competition experience to discover novel methods for solving real-world problems, he wishes to have a tangible and global impact on society.

뇌과학 인지 작용 관심...구세군 활동도 적극



정아란

(캘리포니아·스미스칼리지 신경과학)
이상강 동창회장 장학금

My name is Jung, Aranne (정아란) and I am from Woodland Hills, California. I am studying neuroscience and statistics at Smith College, where I

am also a student-athlete competing on the college's tennis team.

I am honored to be a recipient of the Dora Windes Zollman Scholarship, Smith College's highest academic scholarship. As a Zollman scholar, I am involved in the STRIDE research program on campus. I work as a research assistant in the Mind in Development Lab, where we investigate how the adolescent brain develops to support complex cognitive functions.

This academic year, I made the Dean's List. Moreover, my paper on the haenyeo (해녀) of Jeju Island

and shellfish in Korean history was selected for publication in Smith Writes, an annual journal dedicated to exemplary work by first-year writers. I am also committed to contributing to my campus community as a member of the Athletics Sport Committe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Off campus, I provide tutoring for children through the Help on the Go Program with the Salvation Army. With the support of the Salvation Army, I helped create an international program where we work with Korean students from

underprivileged backgrounds to help them enhance their English abilities and develop the confidence to thrive in our increasingly interconnected world.

This summer, I completed research internships at Emory University Laney Graduate School and at the UCLA Center for Children's Oral Health. In the future, I aim to become a biomedical researcher and pediatric dentist. I want to help children develop life-long good dental practices and prevent painful cavities, while also conducting clinical research.

아트 테라피로 봉사, 개인 전시회도 개최



이윤서

(캘리포니아, USC 미술)
삼익장학금

My name is Yoonseo Lee, and I'm a rising junior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m studying for a BFA in Fine Arts and a minor in Psychology. I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until my family moved to the United States in 7th grade. Since then, I have been interested in making art, so I started volunteering at local art fairs and participating in

art-related events to help children create art.

One of the experiences that changed my life was losing my father. When I suffered from depression after my father's death, making art healed me and led to my academic interest in studying the intersection between art and psychology and to my long-term goal of becoming an art

therapist. This summer, I spent most days volunteering at art therapy in person and online to understand and help improve children's mental health. When I'm not volunteering, I work on personal artwork for my upcoming fall exhibition. I was selected to have a solo exhibition at my school's gallery.

As a fine art major, I aspire to build



의료 과학 스타트업 참여...한인 학생회 활약



이브리
(일리노이-UIUC기계공학)
한백 장학금

My name is Eben Lee, and I am a rising junior studying mechanical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Currently,

I'm part of a medical device startup that is focused on making accessible iron deficiency testing kits and work in a research lab that focuses on active biohybrid matter systems. In addition to these roles, I work as an undergraduate teaching assistant for TAM 211: Introductory Statics at UIUC and am helping start a club focused on networking for Korean students and sharing Korean culture with students on campus. I also serve as the general affairs manager at KCCU, an organization for Korean Christians at UIUC that focuses on shepherding a Christian community for primarily

students studying abroad from Korea. Through my experiences on and off campus, I have developed my passion for entrepreneurship. I believe it offers me an opportunity to create something new by utilizing my experiences and God given talents to help solve important issues in the world.

My current goal is to apply my knowledge and experience to start a medical technology company that focuses on making affordable and accessible medical devices. My interest in medical devices was developed through my experience at the startup I am at and my experience working as a

research intern on campus. I was able to utilize my background in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ing to help design and develop devices that could be used to benefit people on a day to day basis.

Additionally, I believe that innovations, specifically innovations in the healthcare sector, are often gate kept from people of lower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I want to work to help work towards solving this issue. I would like to thank SNUAA for supporting me in the pursuit of my goals and offering me this scholarship.

의료 AI에 관심...컴퓨터 티칭에도 참여



제레미 김
(뉴욕, 스탠퍼드 수학)
고광국 고국화 장학금

Jeremy Kim is a student at Stanford University studying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He is passionate about research in medical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aching.

In high school, he volunteered at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s Radiology Lab, where he explored methods to analyze medical imag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experience made him excited about continuing to stud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xplore additional methods to improve healthcare,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medical imaging, with it. At Stanford, he conducts research with Stanford's Medical Imaging Instrumentation Lab, studying methods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for specialized datasets of PET and CT images.

He hopes to help other students become interested in computer science through teaching. His first experience learning computer science was at his neighborhood's local library, and he believes that teachers can make a powerful difference on their students' lives. He has organized talks and tours of technology companies as the co-president of his school's computer science club. Most recently, he has worked as a teaching assistant for his school's computer science department, where he organized review sessions and answered students' questions during

office hours.

Outside of school, Jeremy enjoys running, writing for his school's comedy magazine, and spending time with his friends and family. He is also a residential assistant for his school's dormitory, Kimball Hall. Jeremy is grateful to have been selected as a scholar, and he hopes to continue learning and developing methods to improve global healthcare through computer science research and cross-disciplinary discussions with the support of this scholarship. He is keen on continuing to help teach and mentor students.

a socially driven art practice that engages viewers and reveals new perspectives, calling attention to urgent problems and feasible solutions. However, by simultaneously studying psychology at university, I will not only develop the capacity to create more nuanced and emotionally layered art but also build a foundation of knowledge from which I can proceed to graduate studies in art therapy. I am so grateful and thrilled to be selected as one of the scholars for the SNUAA Undergraduate Scholarship this year.





문성길
(의대 63·워싱턴DC 전 동창회장)

등불을 밝혀주는 사람들

등불하면 뭐니 뭐니 해도 등대, 그리고 “등대지기”가 떠오르겠지 싶다. 생사의 갈림길, 거친 풍랑에서도 그나마 천행으로 살아남아 지칠대로 지친 어부들에게 비추어지는 망망대해 중에서 깜빡 깜빡이는 희미한 불빛! 기적과도 같으며 하늘의 천사라고 아무리 찬양해도 한치의 과장도 될 수 없는 말 한마디, ‘등불’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대로 살만하다. 왜? ‘등불!’, 힘든 중에도 사회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미담의 주인공들 이야기가 있어서다. 크고 작은 게 없고 모두가 나름대로 대단하고 존경과 눈물이 없이는 소화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80고령에 새벽 기상해 자동차로 10여분 걸리는 성당 문을 휴무인 월요일만 제외

하곤 여러 해 동안 여는 고귀한 책무를 성실히, 기꺼이 수행하는 분이 있음을 안다. 허나 이런 사실은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별것 아닌 것 같으나 이러한 일엔 경쟁(?)도 만만치 않음은, 어느 퇴직한 고위 외교관의 은퇴 후 하고 싶은 Bucket Lists 중에 첫 번째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예 교회 근처로 이사해 채소 텃밭을 가꾸며 교회지기, 성당지기 역이 제일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말이다.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들은 과독 광부, 간호사분들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1960-70년대 조국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극도의 가난과 절망 속에서 이의 극복뿐만 아니라 그 힘든 여정 후 또 다른 힘든 이들을 도와주는 미담은 흘러넘치고도 남는다.

영화 내용 중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갱도 폭발시 그 속에 절망적으로 갇혀 있을 생존 동료들을 구출하려 들어가겠다는 젊은이들과 위험하며 특히 불가능해 보여 안 된다는 광업자 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광부들을 대변해주는 간호사들, 친

동기 이상으로 부상을 치료해주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들이다.

그중 한 분이 ‘만희 재단’ 박형만 이사장의 이야기다. 오늘에야 그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다. 수많은



은 자선 활동 중 특히 힘들고 어린 젊은이들 장학사업이 눈에 띈다.

필자의 주위엔 남 알개, 모르게 등대지기 자처하는 친구, 친지들과 개인적 교

류는 비록 없지만 사표로서 존경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에 필자는 행복하다. 약물중독 청소년들 선도, 치료, 재활사업을 필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몇 십 년을 실천해오고 있는 고교 동창인 나성(L.A.)의 K.목사님, 워싱턴DC인근(전국조직) 장애우 돌봄 조직을 오랫동안 이끄시는 J 목사님과 단원 제위, 희망의 등불을 이끄시는 K선교사님, 남가주에서 등대의 K 목사님, 아예 무명 단체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있음에 자랑스럽다.

이분들이야말로 어렵다는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이분들 이외에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빛과 소금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봉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음이다. 왜? 우리들이, 자신들이 받은 수많은 혜택들에 대해 돌려주는 일종의 ‘되갚음’, ‘빚갚음’이라는 사실이 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들 모두는 ‘빚쟁이들’, 빚쟁이들이 당연히 갚아야 될 빚 갚는 행위를, 무슨 선한 일을 한, ‘봉사’로 치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박 변의 영화 내멋대로 보기

Liar, Liar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영화는 쓸까 말까 수십번 망설였다. 한 마디로 거의 모든 짐 캐리(Jim Carrey) 주연 영화가 그렇듯 쓰레기라서. 그러나 영화 본 게 아까워서, 법 이야기가 나와서, 그리고 짐 캐리 팬 들도 있을 수 있어 쓰기로 했다. 하지만 짐 캐리 팬이 아닌 분들은, 심심해서 몸이 뒤틀릴 때, 할 일 정말 없을때, 여기 쓰는 법 이야기가 어떨까 궁금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영화 첫 장면에서 선생님이 아들한테 아빠 엄마 직업을 묻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의 5살난 아들이 대답한다. “He is... a liar.” 그리고 아빠가 양복입고 법원에 가서 판사와 얘기한다고 하니 선생님이 lawyer임을 알아 듣는데 주인공인 변호사 정말 거짓말장이다. 이런 변호사 조크가 바로 그 때문에 생긴 것처럼:

질문: “변호사가 거짓말 하는지를 어떻게 알까?”

정답: “그가 입을 열고 있을 때.”

그는 못하는 거짓말이 없다. 사건은 물론 거짓으로 이기고, 로펌 직원의 헤어스타일이 전혀 마음에 안들어도 좋다고 하는 소위 white lie부터,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을 깨기 위해 이상한 감기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어머니한테까지 사무실에 있으면서 휴가갔다고 거짓말하는 인간이다.

그는 이혼남인데, 이혼한 처와 같이 사는 아들한테 좋은 아빠가 못된다. 그는 아들과 놀아 주지도 않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면 꼭 일이 생겨 거짓말을 하게 된

다. 그래도 아들은 아빠를 좋아하고 특히 아빠가 손과 손가락을 비틀어 만들어 내는 괴물의 claw 장난을 좋아 한다(무서운 claw를 가진 괴물 또는 claw 그 자체가 애를 잡으러 가는). 주인공은 이거 하나 잘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주연인 Jim Carrey의 우스꽝스런 저질 괴상한 얼굴 연기 때문이다.

아들의 생일인데 그는 역시 생일 파티에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새로운 이혼 사건이 그에게 주어진 것. 천만장자의 아내를 대변하는 소송인데, 혼전 계약에 의해서 그녀는 바람을 피게 되면 한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1번도 아니고 7번이나 바람을 피웠고 바람피운 증거까지 남편은 가지고 있으니 도저히 거짓으로 말고는 이길 수가 없는 사건. 처음엔 그가 속한 로펌의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이 주어졌는데 이 변호사 자신은 거짓으로 사건을 할 수 없으며 거부한 것.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주인공이 그 사건을 맡게 된다. 이 새 사건으로, 그의 직속 상관 여자 변호사의 강압적인 유혹으로, 그는 아들의 생일 파티에 갈 수가 없게 된다. 실망한 아들은 생일 케익에 대고 소원을 비는데 단 하루만이라도 아빠가 거짓말을 안하게 해 달라는 것. 그런데 이 소원이 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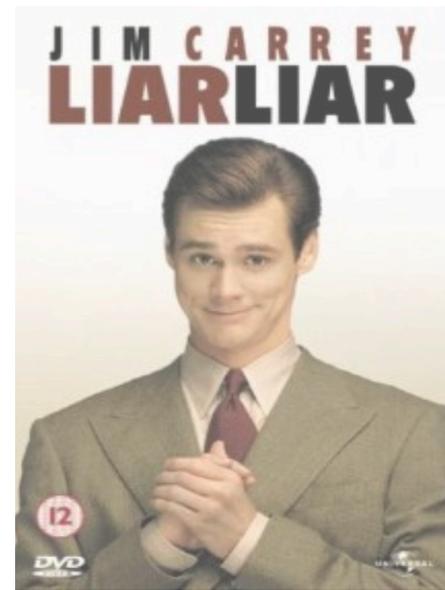
주인공은 그날 밤 8시 15분부터 다음날 밤 8시 15분까지 하룻동안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그리고 거짓말을 못하는 가운데서 재판이 열린다. 어려운 사건을 거짓말도 못하니 어떻게 하나?

다급해진 그는 아들을 만나 거짓말 못하게 하는 소원을 철회해 달라는 소원을 하게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거짓말을 얹고 어떻게 사건을 이기거나? 그러나 진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거부의 아내의 나이였다. 그는 그녀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생년이 거짓임을 밝힌다. 실제 1965년 생을 1964년으로 만든 것. 왜 그랬냐고? 미성년이라 결혼이 안 되므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혼전 계약도 미성년일때 부모 등의 없이 체결한 것. 그래서 계약 자체가 애초부터 무효다라는 것. 계약이 무효이므로 그런 혼전 계약은 없는 것과 똑같고 그렇다면 그녀는 재산의 반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 생년의 진실을 밝히는 바람에 그녀는 승소한다. 재판 도중 어쭙잖게 그리고 어울리지 않게 주인공이 한 마디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And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짤막 법률 토크: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조건 원천 무효?

영화에서 주인공 변호사가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다. 영어로 원천무효는 void 이며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voidable 이라고 한다. 계약은 void 계약과 voidable 계약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void 가 아닌 voidable 계약이다. 즉, 미성년자도 계약을 부모 동의없이 체결할 수가 있고, 성년이 된 다음 미성년때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반대로 인정/재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void 계



약과 voidable 계약에는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void 계약이라면 그 누구도 계약을 인정하거나 재확인할 수가 없고, 쌍방이 다 원해도 계약 성립이 안된다.

승소는 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혼한 전처가 그녀의 남자친구와 아들과 함께 남자 친구의 새 직장이 있는 보스턴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 그는 그가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는 거짓말을 않으리라고 작정한다. 공항으로 뛰쳐 나갔지만 이미 세 사람을 태운 비행기는 활주로에 있다. 그는 아들의 이주를 막기 위해서 비행기의 이륙을 중단시키려는 목숨을 건 모험을 단행하는데...

뻘한 예상이지만 영화는 happy ending 이다. 다시 한번, 영화 자체는 어슬프기 짝이 없는 짐 캐리의 얼굴 연기로 non-sense 그 자체다. Killing time 용으로 보실 것.



김학천
(치대 73)

총 · 궁 · 검

1851년 영국 런던에서 만국박람회(Expo)가 시작되었다. 당시 만국박람회는 자국의 최신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과시하는 일종의 국가 간의 산업화 경쟁의 장(場)이었다. 이에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답게 야심차게 박람회를 열어 건물 전체를 유리만으로 지은 유리궁전(수정궁)을 지어 신건축을 자랑했다.

영국과 경쟁하던 프랑스는 이에 뒤질세라 여러번 파리 만국박람회를 개최했지만 빛을 보지 못하다가 드디어 1889년 에펠탑으로 수정궁을 능가하더니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한 철골구조에 대형돔과 유리로 덮은 아름다운 상징물을 설치하였다.

큰 궁전이란 뜻의 ‘그랑 팔레(Grand Palais)’ 다.

파리의 에펠탑과 함께 최대의 상징적 기념물이 된 이곳에 미국의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기 기술 그리고 유럽의 무선통신과 전자파 및 자동차 기술, 퀴리 부부의 방사선 기술 등이 소개됐다.

이때 대한제국도 참가하여 경복궁 근정전을 닮은 2층 전시관을 지었다. 화려한 색을 입힌 목조건물에 하늘로 솟은 처마와 지붕으로 한국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선보였다.

그리고는 비단과 늦그릇, 도자기, 나전 칠기와 공예품, 의복 등을 비롯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심경을 세계인들에게 처음 공개했으며 조선의 투구, 검, 화살통, 군복 등도 전시했다. 대한제국은 대상 1개와 금메달 2개를 포함 모두 21개를 수상했다.

박람회가 폐막되자 대한제국관은 헐렸고 그랑팔레는 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된 후 박물관(미술관)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다시 100년이 지난 올해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개조되어 펜싱과 태권도 종목 경기장이 되었다.

비록 대한제국관은 없어졌지만 그 발자취가 남아있는 이곳에서 펜싱 사브르의 오상욱 선수가 한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100년을 이어온 호흡의 기운을 느끼는 듯 하다. 이어 사격과 양궁 등에서 연이은 금메달을 따내자 ‘금메달 세 개 땀는데 그게 칼, 총, 활이다. 무기의 나라, 전투의 나라’ 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어찌보면 그도 그럴 것이 삼국시대 이래 930여 차례에 이른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치루어야했던 끈질긴 전투력의 DNA가 형성되어서 일게다. 그 옛날 아시아 최강인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 대군을 격파했으며 거란족 요나라와 왜국 또한 물리쳤으니 태극전사란 호칭이 괜한 말은 아니다.

특히 한국 양궁은 ‘10년 연패’ 라고 하니 한 종목에서 무려 40여년을 지켜온 독보적 존재, ‘전설’ 을 넘어 ‘신화’ 라 아니할 수 없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고 하더니 과연 활의 민족 후손답다.

여담이지만 그리고 보니 네티즌들이 표현한 태극전사들의 ‘칼, 총, 활’ 의 위업을 대하면서 세계적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지은 인류 문명에 대한 책 ‘총, 균, 쇠’ 가 떠오른다. 마치 ‘총, 균, 쇠’ 가 세상의 문명을 좌우했듯 이번 한국선수들이 대회 초기 기염을 토한 ‘총(銃), 궁(弓), 검(劍)’ 의 석권을 이야기한다면 너무 지나친 비유일는지.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그래도... 1900년 파리에서는 만국박람회와 함께 제2회 올림픽도 동시에 열렸다. 해서 당시 박람회와 더불어 올림픽에도 참가했다면 일제강점기 이전에 자주 독립국가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세계 경기대열에 기록되어 우리의 올림픽 역사 이정표가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또 누가 알랴? 메달 입상자라도 나왔다면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 태극전사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마담 프레지던트’의 탄생

새벽녘 백악관의 비상전화가 격무에 시달려 곤히 잡든 대통령을 깨운다. 미국 핵잠수함이 원산 앞바다에서 좌초됐다는 급보다. 북한은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목을 조른다. 미군 정찰기가 북한군의 포격으로 파손을 입고 돌아오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다.

곧바로 최고위 안보회의가 열린 백악관 상황실. 전쟁이 터지면 미군 35만명이 희생된다며 잠수함 승무원 155명을 포기하자는 합참의장의 제안에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낸다. “나는 자기 부하들을 죽임으로 몰아넣은 최초의 군통수권자(대통령)가 되지 않겠다”고 다부진 결기를 보인다.

실제 상황은 아니고 지난 2005년 ABC의 인기드라마 ‘커맨더 인 치프(Commander-in-Chief)’ 곧 ‘군통수권자’ 에 나오는 에피소드다. 여성 대통령을 주제로 한 드라마여서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

원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는 ‘썰’에 휩싸이면서 시청률 대박을 터트렸다.

총 18부작으로 제작된 드라마에서 북한 관련은 두개나 된다. 할리우드에서도 북한문제는 스틸과 서스펜스를 만끽할 수 있는 ‘블루칩 엔터테인먼트’ 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드라마 속의 여성 대통령은 매켄지 앨런(지나 데이비스 분). ‘깡’ 보수주의적이고 남성우월감에 빠진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앨런은 북한이 미국의 구조선을 공격할 경우 가공할만한 무력으로 응징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경제지원 명목으로 5억달러를 제공해 상황을 종료시킨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버금가는 일촉즉발의 사태에서도 앨런은 “어떤 핵도 좋은 핵은 없다(No nukes is good nukes)”며 핵과국만은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호평을 받았다.

한물 간 여배우라는 흑평에 시달렸던 지나 데이비스는 이 드라마 출연으로

이듬해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따내는 등 부활의 날개를 폈다.

힐러리도 이 드라마에 자극을 받았는지 2008년 민주당 경선에서 “새벽 3시 백악관에 비상전화가 걸려오면 누가 받을까”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보냈다. 위기상황에선 자신이 버락 오바마 후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넌지시 암시한 것이다.

현재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여성이 최고지도자인 나라는 29개국에 이른다. 얼마전엔 ‘세계 10위 인구대국’ 멕시코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심지어 1970년대 혹독한 군부독재를 경험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 등 이른바 ABC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배출됐다. 세계 정치 지형도가 점차 ‘미스터 프레지던트’에서 ‘마담 프레지던트’로 바뀔 기세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내세워 국정운영을 이뤄낸 지도자들은 드물다. 대부분 앨런과 같은 ‘철의 여인’ 스타일이다. “웅변은 남에게 맡기고 나는 행동

만 하겠다”며 영국병을 치유한 ‘마가렛 대처의 키드’들이다.

힐러리는 그러나 ‘커맨더 인 치프’의 흥행성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오바마에 밀렸다. 지난 2016년에도 백악관 탈환에 재도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에 져 아쉽게도 대권의 꿈을 접어야 했다. 드라마와는 달리 미국에선 제도권 정치의 벽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이번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힐러리의 뒤를 이어 트럼프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사퇴를 하기 전까지 트럼프 우세가 확실했던 경합주에서도 해리스의 지지율이 따라 붙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선정국이 ‘트럼프 우세’에서 ‘초접전’으로 바뀐 모양새다. 전국단위 지지율에서도 해리스(48%)가 트럼프(47%)를 앞서 힐러리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마담 프레지던트’의 탄생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문리대 77 편집고문〉

전임교원 2326명 중 여성 20.6%, 여학생은 35.5%

모교 다양성 보고서 발간

모교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최근 모교 다양성위원회(위원장 민은기)가 발간한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모교 전체 전임교원 2326명 중 여성 전임교원은 479명으로 20.6%를 차지했다. 지난해 19.7%에서 소폭 상승한 비율이다.

모교 여성 전임교원은 2021년 13.0%에서 2023년 20.6%까지 점진적으로 비율이 높아졌다. 정부가 2020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통해 모든 국립대가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권고한 여성 전임교원 비율 25%에 근접해가는 추세다. 또한 한 해 신규임용 교원 중 여성 교원 비율도 늘고 있다. 2023년 신규임용 교원 123명 중 38명은 여성으로, 처음으로 신규임용 여성교원 비율이 30%에 근접했다.

여성 전임교원이 50% 이상인 학과/학부/교실 수는 24개(15.4%)로, 특히 생활대는 90.9%가, 간호대는 87.5%가 여성이었다. 반면 공과대학/공학전문대학원은 전임교원 324명 중 여성이 25명으로 7.7%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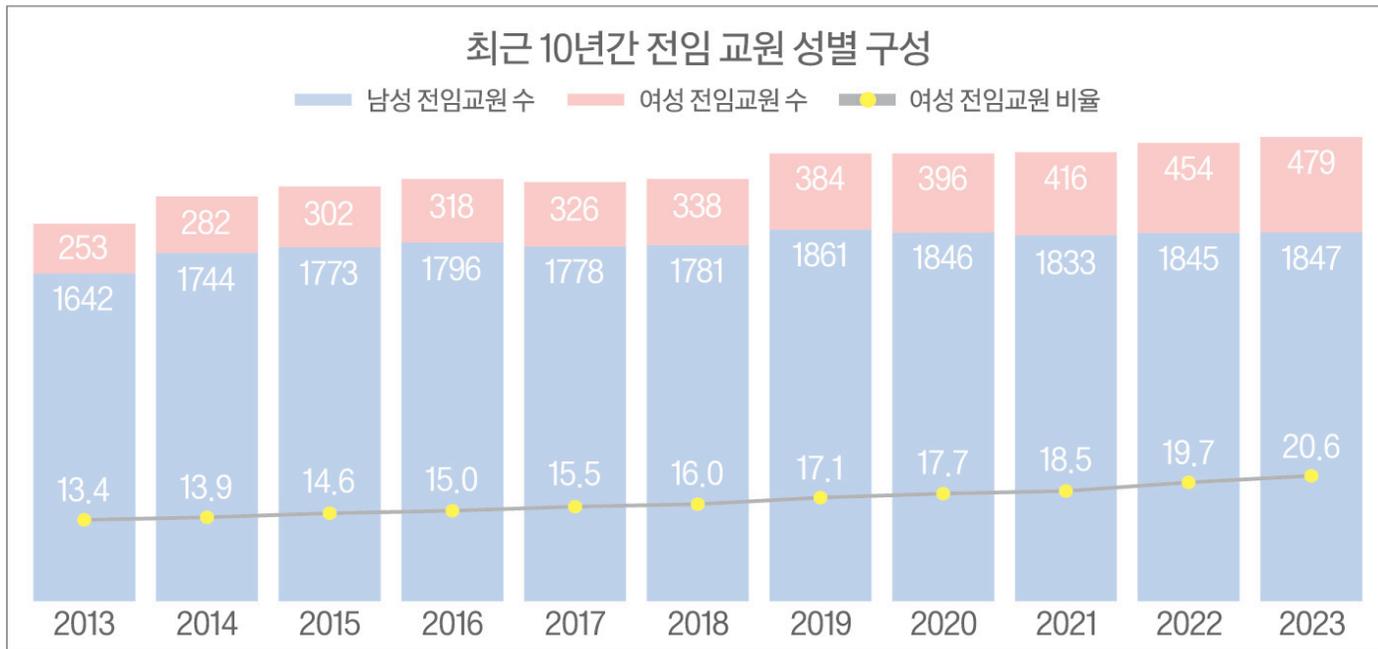
여성 전임교원이 한 명도 없는 학과/학부/교실 수는 14개로,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응용바이오공학과,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의공학교실, 의료관리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치의학대학원 구강생리학교실, 치과경영정보학교실, 치과보존학교실, 치주과학교실이 포함됐다.

전임교원의 학문적 배경을 살펴보면 전체 전임교원 중 내외국인을 합해 타대학 학부 출신은 24.4%였다. 모교 학부 출신이(75.6%)이 약 3배 많다. 외국인 전임교원 중에서도 모교 학부 출신은 18.9%를 차지했다. 최종 학위가 해외 대학인 정교수의 42.2%는 미국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했고, 2.5%는 영국, 2.4%는 독일, 1.8%는 일본에서 취득했다.

2023년 10월 기준 모교의 전체 외국인 교원/연구원은 53개국 출신 47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임교원에서 외국인 수는 111명으로 최근 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학부 재적생 총 2만515명 중 여학생은 7274명으로 35.5%였다. 지난해(36%)보다 약간 하락했다. 학사과정 여학생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석사·박사과정 여학생 비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과학·기술·공학·수학의 STEM 분야에선 여전히 여학생 비율이 낮았다. 학부에선 공대 여학생 비율이 11.4%로 가장 낮았고, 자연대(18.9%), 농업생명과학대학(31.4%), 의과대학(32.6%)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가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다양성’, ‘다문화’ 등을 주제로 모교에 개설된 다양성 교과목 수는 34개



생활대 90.9%, 간호대 87.5% 반면 공대는 7.7% 학부 여학생 비율도 공대는 11.4%로 가장 낮아

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미국 워싱턴대의 경우 한 학기에 다양성 교과목 137개를 운영하며 모든 학부생의 다양성 교과목 수강을 필수 졸업 요건으로 정했다. 그밖에 다양성 교육이 활성화된 해외 대학 사례에 비하면 모교 학

사과정에서도 다양성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모교 학부생 213명을 대상으로 다양성 교과목 요구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실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활동하는 수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갈망하는 데서 나온 결과”라며 “학부생들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다양성 교과목 목표를 세우고, 다양성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과 방법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제의 동문 유튜버

‘알파고의 지식램프’ 알파고 시나씨

국제 정세 발빠르게 알려주는 ‘대한 중동인’

“이렇게 자막 없고 편집도 안 된 영상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오늘 새벽 2시 이란에서 암살됐습니다.”

7월 31일 알파고 시나씨(Alpago Sinasi) 동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파고의 지식램프’에 다급히 영상을 올렸다. 5분 남짓한 영상에 짤막하게 하마스 수장 암살 사태에 대한 사건을 담았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튀르키예 외신기자로 일했던 그는 ‘비정상회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특파원 25시’ 등 방송에서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중동통으로서 진면모는 유튜브에서 드러난다. 한국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는 국제 뉴스, 세계사 관련 영상을 올리며 구독자 14만명을 모았다.

튀르키예 이디르 출신인 알파고 동문은 2004년 한국에 유학 왔다. 충남대 정치외교학부 졸업 후 모교에서 외교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튀르키예 지한통신사 최초 한국 특파원으로 터키 언론에 한국과 북한, 아시아 소식을 전했다. 그



러나 2018년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의 언론 탄압으로 지한통신사가 강제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동료들이 체포되거나 망명하는 상황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한국 귀화. ‘대한중동인’으로 한국인에게 머나먼 중동을 제대로 알려겠다고 결심한다.

중동의 시각에서 중동을 비롯한 세계 문제를 바라보고 한국어로 풀이한다는 점에서 그의 콘텐츠는 독보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물론 이스라엘 예멘 분쟁, 이란 정치 등 세계 정세를 심도 있게 리뷰한다.

세계 이슈와 한국의 연결점을 발견하

는 능력도 탁월하다. 2023년 니제르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한국의 우라늄 수입과 연결지며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아프리카는 매일 쿠데타하는 곳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서 전자제품과 자동차 장사로 먹고 사는 나라다. 오세아니아의 인구 3만명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라도 무관심하면 안 된다.”

최고 조회수 영상은 ‘한국 여권 덕분에 이슬람 성지에서 15분에 패스’. 한국 여권을 들고 떠난 세계 여행 콘텐츠 중 하나다. 마호메트 무덤 소재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를 방문한 영상에선 성지순례의 열기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무슬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팔레스타인 ‘알 아크사’ 사원 내부를 담아오기도 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그는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려 노력한다. 매주 라이브 방송 ‘지식램프의 세계수다’를 진행하고, 서브 채널 ‘양탄자 뉴스’를 추가해 속보성 영상을 올린다.

박수진 기자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종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강재호 (상대 57)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뉴욕 - 김현중 (공대 63)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숙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자성 (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운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창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호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중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종률 (사대 51)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故방은호 (약대 43)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흥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서취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박진영 (공대 66)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강영국 (수의대 67)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04,000
(7/1/23 - 12/31/23 17대 1차 회기 6개월)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한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틀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와하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3.12.31; 제2차 회기: 2023.7.1 - 2025.6.30) *2차 회기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꿨습니다

남가주

- 강경수 (법 58)
- 강동순 (법 59)
- 강윤희 (간 46)
- 강재호 (상 81)
- 강창만 (의 58)
- 강춘자 (간 69)
- 강호석 (상 81)
- 강준우 (의 68)
- 고석규 (치 65)
- 권기상 (대 72)
- 권봉성 (문 64)
- 김경 (문 63)
- 김경수 (사 58)
- 김갑진 (문 62)
- 김동석 (음 64)
- 김영배 (미 61)
- 김경수 (치 54)
- 김경욱 (미 61)
- 김경자 (미 60)
- 김광은 (음 56)
- 김난영 (공 53)
- 김동산 (법 59)
- 김명숙 (농 58)
- 김명희 (간)
- 김문엽 (농 83)
- 김범수 (문 61)
- 김병완 (공 58)
- 김상찬 (문 65)
- 김석홍 (법 59)
- 김성호 (법 64)
- 김성환 (의 65)
- 김수향 (간 68)
- 김순갈 (법 54)
- 김순자 (치 57)
- 김영덕 (법 58)
- 김옥경 (생 60)
- 김용주 (간 69)
- 김용채 (문 61)
- 김원탁 (공 65)
- 김일영 (의 65)
- 김자성 (의 79)
- 김재영 (농 62)
- 김정애 (간 69)
- 김정호 (농 59)
- 김종표 (법 58)
- 김준일 (공 62)
- 김창진 (공 77)
- 김태환 (문 78)
- 김태윤 (법 53)
- 김택수 (의 57)
- 김학철 (의 55)
- 김혜숙 (미 68)
- 김흥욱 (문 60)
- 김희창 (공 64)
- 나두섭 (의 66)
- 나승욱 (문 59)
- 나용화 (생 79)
- 노명호 (공 61)
- 문경호 (문 59)
- 문병길 (문 61)
- 마동일 (의 57)
- 민영기 (공 65)
- 민일기 (약 69)
- 박명근 (상 63)
- 박민식 (수 65)
- 박부강 (사 64)
- 박상원 (대 20)
- 박원준 (공 53)
- 박용 (문 89)
- 박우선 (공 57)
- 박은숙 (미 62)
- 박은희 (미 68)
- 박인수 (농 64)
- 박인창 (농 65)
- 박일우 (의 70)
- 박인하 (치 56)
- 박자경 (생 60)
- 박중수 (수 58)
- 박찬호 (공 58)
- 박찬호 (농 63)
- 박한영 (치)
- 박혜란 (미 70)
- 박혜옥 (간 69)
- 박호현 (의 52)
- 박흥근 (공 64)
- 박희자 (음 68)
- 방명진 (공 73)
- 배동완 (공 65)
- 백옥자 (음 71)
- 백혜란 (미 70)
- 벤자민 홍 (문 53)
- 서동영 (사 60)
- 서명희 (농 67)
- 서세진 (음 62)
- 서치원 (공 69)
- 성낙호 (치 63)
- 성주경 (상 68)
- 손갑수 (약 59)
- 손기용 (의 55)
- 손학식 (공 61)

- 송명국 (문 81)
- 신건호 (법 63)
- 신동국 (수 76)
- 신영찬 (의 62)
- 신정연 (미 61)
- 양승문 (공 65)
- 양승조 (음 70)
- 양은석 (음 70)
- 양태준 (상 56)
- 오선웅 (의 63)
- 오찬수 (약 57)
- 故 오형원 (의 53)
- 우준식 (상 61)
- 원종민 (의 57)
- 유종민 (공 64)
- 유덕영 (공 57)
- 유아중 (농 74)
- 유석환 (치 55)
- 윤대식 (의 61)
- 윤경민 (법 55)
- 윤영돈 (법 59)
- 유영자 (음 63)
- 유희성 (치 65)
- 이강훈 (치 65)
- 이건일 (의 62)
- 이경희 (인 83)
- 이기준 (법 54)
- 이명숙 (농 58)
- 이방기 (농 59)
- 이법식 (공 61)
- 이상우 (의 56)
- 이서희 (법 70)
- 이상수 (공 56)
- 이상자 (간 76)
- 이소희 (의 61)
- 이영수 (상 60)
- 이영일 (문 53)
- 이영현 (간 70)
- 이용한 (공 64)
- 이원택 (의 65)
- 이원익 (문 73)
- 이익삼 (사 58)
- 이장길 (치 63)
- 이재권 (간 56)
- 이정근 (사 60)
- 이정남 (공 63)
- 이정화 (공 52)
- 이종모 (간 69)
- 이준호 (상 65)
- (고)이중희 (공 53)
- 이진영 (의 65)
- 이창우 (공 54)
- 이창신 (법 57)
- 이철광 (상 61)
- 이채진 (문 55)
- 이태영 (법 60)
- 이호 (음 92)
- 임동규 (미 57)
- 임동호 (약 55)
- 임문빈 (상 58)
- 임석중 (공 50)
- 장기열 (치 55)
- 장기창 (공 56)
- 장대우 (음 57)
- 장동석 (문 66)
- 장문섭 (공 69)
- 장소현 (미 65)
- 장용오 (약 57)
- 장원경 (미 73)
- 장윤희 (사 54)
- 장인숙 (간 70)
- 장정용 (미 64)
- 장중호 (공 56)
- 전경배 (의 69)
- 전낙관 (사 60)
- 전범수 (농 71)
- 전상욱 (사 52)
- 전원일 (의 77)
- 정균희 (의 64)
- 정동주 (생 72)
- 정명자 (사 56)
- 정예현 (상 63)
- 정연용 (상 63)
- 정인환 (법 54)
- 정재형 (약)
- 정철룡 (의 61)
- 정현진 (간 68)
- 정형민 (문 71)
- 정혜영 (간 72)
- 정환 (공 64)
- 제영혜 (생 71)
- 조경애 (문 64)
- 조동철 (사 68)
- 조재국 (농 67)
- 주선희 (문 66)
- 주정래 (상 65)
- 조춘자 (간 61)
- 조태목 (사 60)
- 주정래 (상 65)
- 주훈 (음 69)
- 차중환 (사 54)

뉴욕

- Ai Ja Lee
- 고애자 (음 57)
- 계동휘 (치 67)
- 곽선섭 (공 61)
- 강상진 (의 53)
- 고순정 (간 69)
- 고애자 (음 57)
- 권문용 (미 61)
- 권영국 (상 60)
- 권영대 (공 69)
- 권정덕 (의 58)
- 금영천 (약 72)
- 김광현 (치 61)
- 김광현 (미 57)
- 김문경 (약 61)
- 김승호 (공 71)
- 김우영 (상 60)
- 김우현 (의 59)
- 김영무 (공 75)
- 김영웅 (치 55)
- 김영진 (문 50)
- 김영철 (의 55)
- 김영희 (법 80)
- 김용연 (문 63)
- 김정희 (간 69)
- 김종원 (거 58)
- 김진자 (간 60)
- 김창수 (공 64)
- 김창화 (미 65)
- 김태일 (공 68)
- 김학자 (간 59)
- 김혜광 (의 52)
- 김현중 (공 63)
- 남상래 (간 65)
- 문석면 (의 52)
- 민민기 (의 67)
- 리준우 (음 65)
- 박건이 (공 60)
- 박경희 (음 57)
- 박상수 (공 56)
- 박은규 (약 72)
- 방준재 (의 70)
- 변경웅 (공 65)
- 변호련 (간 63)
- 배상규 (약 60)
- 서병은 (음 65)
- 서충선 (사 57)
- 석창호 (의 66)
- 선종철 (의 59)
- 성기호 (약 57)
- 손갑수 (약 59)
- 손경택 (농 57)
- 손진태 (약 67)
- 송기인 (의 60)
- 송운길 (대학원 69)
- 신두식 (의 58)
- 신응남 (농 70)
- 안태홍 (상 65)
- 양명자 (사 63)
- 양성택 (상 66)
- 오용환 (의 66)
- 오영환 (약 68)
- 에드워드 강 (문 60)
- 우규환 (사 60)
- 우상영 (상 55)
- 유인숙 (간 63)
- 유재섭 (공 65)
- 유호근 (문 73)
- 윤순재 (의 63)
- 윤병남 (사 62)
- 윤영섭 (의 57)
- 윤철 (문 54)
- 윤현남 (공 64)
- 이강욱 (공 70)
- 이명중 (공 72)
- 이문봉 (미 76)
- 이중욱 (농 69)
- 이중호 (의 63)
- 이상근 (상 84)

- 이상우 (의 56)
- 이영일 (의 60)
- 이유성 (사 57)
- 이재진 (의 59)
- 이준현 (공 48)
- 이태안 (의 61)
- 이희만 (간 70)
- 이흥우 (공 50)
- 전병성 (약 54)
- 정동성 (상 58)
- 정인용 (의 71)
- 정해민 (법 55)
- 정화용 (사 61)
- 조남천 (사 59)
- 조대영 (공 61)
- 조두환 (의 61)
- 조중수 (공 64)
- 조태환 (상 56)
- 진봉일 (공 50)
- 차국만 (상 60)
- 최영태 (문 67)
- 최승용 (의 61)
- 최정용 (사 65)
- 최준희 (의 58)
- 최정용 (사 63)
- 최한용 (농 58)
- 최명우 (법 69)
- 한병용 (문 71)
- 한대진 (의 58)
- 함중근 (간 66)
- 허경력 (의 71)
- 허선철 (의 58)
- 허정열 (사 63)
- 홍정표 (음 67)

뉴잉글랜드

- 곽노균 (상 51)
- 김경일 (공 58)
- 김문소 (수 61)
- 김선희 (약 59)
- 김우동 (사 58)
- 김형범 (문 57)
- 박영철 (농 64)
- 박중진 (의 56)
- 송미자 (농 62)
- 윤상래 (수 62)
- 윤정희 (간 60)
- 이규진 (약 60)
- 이금하 (문 69)
- 이은주 (음 73)
- 이인주 (공 68)
- 임영호 (공 72)
- 정성복 (공 58)
- 정선주 (간 68)
- 정정욱 (의 60)
- (고)주창준 (의 50)
- 최신익 (문 69)
- 한서동 (의 61)

네바다

- 김상순 (상 67)
- 김영중 (치 66)
- 김용재 (의 60)
- 이학은 (약 57)
- 정상진 (상 59)

달라스

- 최희기 (공 61)

미네소타

- 김권식 (공 61)
- 문성인 (공 88)
- 민홍기 (공 88)
- 성유진 (농 86)
- 윤정식 (문 56)
- 주한수 (수 62)
- 황효숙 (사 65)

미시간

- 고광국 (공 54)
- 고선희 (문 63)
- 김국희 (공 56)
- 김우일 (의 60)
- 김정화 (음 56)
- 김재식 (의 61)
- 남성희 (의 56)
- 박용화 (의 58)
- 오동환 (의 65)
- 오혁주 (사 88)
- 이상길 (의 65)
- 장병진 (공 61)
- 조병권 (공 64)
- 주명순 (간 64)
- 하계현 (공 64)

북가주

- 강재호 (상 57)
- 김교연 (문 72)
- 김성철 (공 82)

- 김윤걸 (자 77)
- 김정복 (사 55)
- 김정희 (법 56)
- 김현왕 (공 64)
- 남광순 (음 64)
- 박서규 (법 56)
- 박성수 (공 59)
- 박영훈 (공 72)
- 박진영 (공 66)
- 송영훈 (상 57)
- 신규영 (공 64)
- 안호삼 (문 58)
- 윤성희 (사 58)
- 위창호 (의 67)
- 이관모 (공 55)
- 이성원 (공 65)
- 이상형 (공 57)
- 이장우 (문 72)
- 이창한 (공 56)
- 이흥기 (공 62)
- 임승배 (문 66)
- 임정란 (음 76)
- 전병련 (공 54)
- 정춘임 (간 67)
- 조태목 (사 60)
- 최경선 (농 65)
- 한상봉 (수 67)
- 홍병익 (공 68)
- 황동하 (의 65)

샌디에고

- 고경하 (공)
- 김인철 (약 70)
- 남정우 (사 56)
- 이문상 (공 62)
- 오계환 (공 64)
- 윤진수 (의 57)
- 이문상 (공 62)
- 이면기 (공 64)
- 이영신 (간 77)
- 임춘수 (의 57)

시카고

- Ja H. Song
- 강영국 (수 67)
- 구경희 (의 59)
- 김길준 (의 59)
- 김동희 (공 66)
- 김규호 (의 58)
- 김병윤 (문 65)
- 김성일 (공 68)
- 김승주 (간 69)
- 김영우 (문 66)
- 김용주 (공 69)
- 김용환 (공 71)
- 김윤하 (공 66)
- 김정수 (문 69)
- 김현주 (문 61)
- 노영일 (의 64)
- 민영기 (공 65)
- 박동수 (정 58)
- 박정일 (의 61)
- 박창욱 (공 56)
- 백은기 (문 56)
- 서상현 (의 65)
- 소진문 (치 58)
- 송재현 (의 45)
- 신석근 (문 54)
- 안영학 (문 57)
- 연경자 (약 65)
- 유기정 (간 72)
- 육길원 (사 59)
- 윤경순 (사 61)
- 윤덕상 (치 62)
- 이경미 (미 69)
- 이건정 (공 69)
- 이동근 (공 75)
- 이소희 (간 68)
- 이승자 (사 60)
- 이시영 (상 45)
- 이용락 (공 48)
- 이용수 (약 51)
- (고)이윤모 (농 57)
- 이중일 (의 65)
- 장윤일 (공 60)
- 전연학 (공 69)
- 전현일 (문 62)
- 조대현 (공 67)
- 최대환 (의 59)

- 최혜숙 (의 53)
- 최희수 (문 67)
- 한재은 (의 59)
- 홍건 (의 64)
- 홍정일 (약 57)
- 황소나
- 황치용 (문 65)

아리조나

- 진명규 (공 70)

오레곤

- 김영자 (간 56)
- 박진진 (농 78)
- 최용성 (의 55)
- 김종구 (수 73)
- 김현희 (간 59)
- 백낙영 (상 61)
- 서광모 (공 65)
- 소용덕 (의 57)
- Steve Sung
- 오경호 (수 60)
- 윤영돈 (법 59)
- 은철수
- 이중석 (의 54)
- 임수암 (공 62)
- 임한웅 (공 60)
- 정선희 (공 65)
- 최덕순 (간 58)
- 최종진 (의 63)
- 한성수 (의 54)

오하이오

- 명인재 (자 75)
- 박훈 (공 74)
- (고)이영웅 (의 57)

워싱턴 DC

- 강길중 (약 69)
- 고익걸 (의 55)
- 곽명수 (문 65)
- 권철수 (의 68)
- 김기봉 (공 63)
- 김기환 (공 67)
- 김내도 (공 62)
- 김부근 (의 58)
- 김영란 (사 58)
- 김윤호 (공 64)
- 김용환 (치 88)
- 김희주 (의 62)
- 나연수 (사 57)
- 남춘일 (사 69)
- 박인영 (의 69)
- 박일영 (문 59)
- 박찬모 (공 54)
- 박후우 (문 61)
- 배성호 (의 65)
- 백순 (법 58)
- 백용현 (공 64)
- 서윤석 (의 62)
- 석근범 (문 61)
- 신경은 (문 65)
- 오인환 (문 63)
- 양용관 (수 62)
- 우재홍 (상 54)
- 유달 (의 67)
- 유영신 (인 74)
- 유영준 (의 74)
- 이건형 (수 54)
- 이규양 (문 62)
- 이내원 (사 58)
- 이서구 (문 61)
- 이선구 (문 65)
- 이성배 (수 57)
- 이연주 (치 88)
- 이영덕 (사 61)
- 이윤주 (상 63)
- 이재승 (의 55)
- 이종국 (의 52)
- 이준영 (치 74)
- 이진상 (공 57)
- 이철수 (공 61)
- 임광록 (간 72)
- 전희순 (간 76)
- 정영자 (사 56)
- 정원자 (농 62)
- 정평희 (공 71)
- 조병선 (의 65)
- 전권희 (간)
- 최경수 (문 54)
- 최대영 (의 73)
- 최재귀 (미 63)
- 한광수 (의 57)
- 홍영석 (공 58)

워싱턴주

- 권영희 (약 66)
- 김교선 (법 54)
- 김인배 (공 59)
- 김재훈 (공 72)
- 류성열 (공 72)
- 변동혜 (법 58)
- 안승적 (농 59)

- 윤석진 (문 64)
- 윤태근 (상 69)
- 이길승 (상 57)
- 이명자 (간 74)
- 이연주 (치 88)
- 이희백 (의 55)
- 정영자 (사 56)
- 최준한 (농 58)

유타

- 김인기 (문 57)

조지아

- 김기준 (공 61)
- 김영서 (상 54)
- 김종구 (수 73)
- 김현희 (간 59)
- 백낙영 (상 61)
- 서광모 (공 65)
- 소용덕 (의 57)
- Steve Sung
- 오경호 (수 60)
- 윤영돈 (법 59)
- 은철수
- 이중석 (의 54)
- 임수암 (공 62)
- 임한웅 (공 60)
- 정선희 (공 65)
- 최덕순 (간 58)
- 최종진 (의 63)
- 한성수 (의 54)

캘리포니아

- 이중영 (음 58)
- 정신호 (자 78)

커네티컷

- 라찬국 (의 57)
- 최창승 (의 58)

테네시

- 김경덕 (공 75)
- 서갑식 (공 70)
- 임효준 (간 71)

휴스턴

- 김영일 (의 55)
- 박석규 (간 59)
- 박유미 (약 62)
- 박태우 (공 64)
- 이윤성 (수 81)
- 이은애 (음 81)
- 이학호 (수 59)
- 진기주 (상 60)
- 최관일 (공 54)
- 최성호 (문 58)
- 최용천 (의 53)

텍사스

- 김정환 (공 81)
- 유황 (농 56)
- 윤영주 (문 60)
- 조진태 (문 57)
- 전종희 (공 56)
- 진기주 (상 60)
-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 김성준 (의 55)
- 김종권 (의 63)
- 박창익 (농 64)
- 안창현 (의 55)
- 오석일 (의 64)
- 원인순 (문 71)
- 이민우 (의 67)
- 이만택 (의 52)
- 정의철 (의 55)
- 하재청 (문 67)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 55)
- 강준철 (사 59)
- 김경희 (가 71)
- 김국간 (치 64)
- 김규화 (상 63)
- 김정현 (공 58)
- 김현영 (수 58)
- 손재욱 (가 77)
- 송성균 (공 50)
- 서의원 (공 66)
- 서중민 (공 64)
- 성정호 (약 59)
- 신선자 (사 60)
- 심영석 (공 76)
- 안세현 (의 62)
- 엄종렬 (미 61)
- 오진석 (치 56)
- 유영걸 (의 70)
- 윤경숙 (문 59)
- 윤정나 (음 57)
- 이규호 (공 56)
- 이상숙 (생 74)

- 이상경 (자 81)
- 이지훈 (미 57)
- 이홍일 (상 70)
- 조화연 (음 64)
- 전무식 (수 61)
- 전방남 (상 73)
- 정덕준 (상 63)
- 정학량 (약 56)
- 정흥택 (상 61)
- 조정현 (수 58)
- 주기목 (수 68)
- 지흥민 (수 61)
- 최중무 (상 63)
- 최현태 (문 62)
- 한동휘 (문 57)
- 한수웅 (의 55)
- 한우용 (보 70)

하와이

- 김달욱 (사 55)
- 김용수 (농 75)
- 김홍균 (공 63)
- 안은식 (문 55)
- 이재형 (수 61)
- 최경윤 (사 51)
-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 김경숙 (가 70)
- 김재경 (공 64)
- 김태찬 (음 80)
- 김시근 (공 72)
- 배규진 (문 68)
- 오명순 (생 69)
- 이광자 (간 63)
- 이상강 (의 70)
- 이주현 (미 92)
- 이치현 (약 77)
- 임소연 (음 91)
- 정민재 (농 71)
- 조원지 (문 63)
- 호민선 (상 59)

룩키마운틴스

- 송요준 (의 64)
- 전남민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김성환 (의 65)	3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0,000
박한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홍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채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10,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현상 (의 55)	100
뉴욕	
곽선섭 (공 61)	200
신응남 (농 70)	700
김광현 (미 57)	20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2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행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200
오석일 (의 64)	2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커틀라	
최창송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20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1,000
백순 (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1,000
주창준 (의)	2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필라델피아	
최창송 (의 52)	500
손재욱 (가 77)	5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조지아	
이종석 (의 54)	200
최종진 (의 63)	5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 81)	480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이종묘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240
김경무 (공 69)	240
김원탁 (공 65)	480
김일영 (의 65)	240
김자성 (의 79)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24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태영 (법 60)	48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김치갑 (의 73)	240
박중호 (의 79)	240
신응남 (농 70)	48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24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노명호 (공 61)	10,000
박원준 (공 53)	3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400
홍성선 (약 72)	100
미시간	
고광국 (공 54)/	100,000
고국화 (공 56)	100,0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3,000
이용락 (공 48)	3,0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신의석 (공 53)	5,0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10,000
박수경 (생 84)	3,6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전구 (농 60)	1,500
하기환 (공 66)	1,000
홍훈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1,5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인명록비

뉴욕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튀르키예 기부금	
남가주	
서진 (간)	3,0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2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1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나눔기금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300
펜실베이니아	
신의석 (공 53)	5,0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제 33차 평의원 회비	
남가주	
강미자 (음 62)	200
김기형 (상 75)	200
김병완 (공 58)	300

김홍목 (문 60)	
이종묘 (간 69)	
이채진 (문 55)	
민일기 (약 69)	
박중수 (수 58)	
이창렬 (상 67)	
전경배 (의 69)	
조두연 (수 62)	
조정시 (공 60)	
임춘택 (상 68)	
뉴욕	
신정윤 (공 60)	
신응남 (농 70)	
이희만 (간 70)	
조상근 (법 69)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룩키마운틴스	
권순영 (간 69)	
커틀라	
김창수 (의 54)	
조지아	
김명숙 (약 69)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국화 (공 56)	
조병권 (공 64)	
워싱턴 DC	
박평일 (농 7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필라델피아	
김현영 (수 58)	
윤정나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김경숙 (가 70)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 ~ 2025/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익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 Seoul Korea |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기승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 (의대 79)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소아청소년 진료

예약 및 문의.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재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차),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최경석(사)/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나용화(생)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흥택(공), 공동위원장
 박평일(농), 공동위원장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tf@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승(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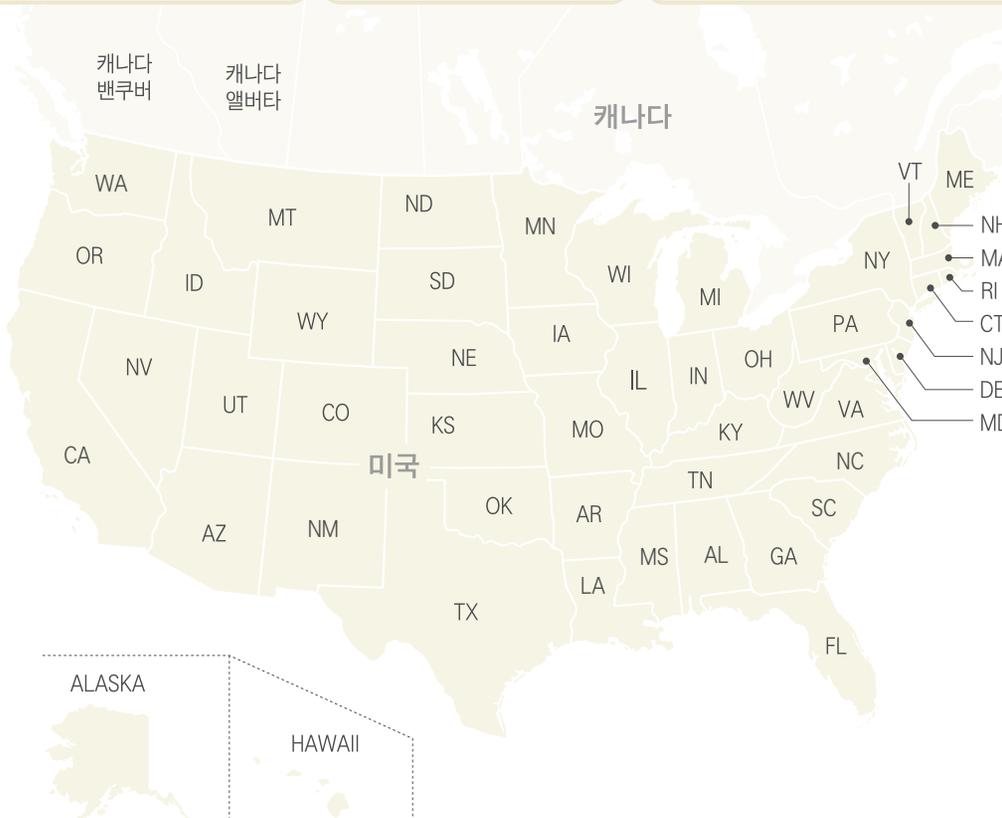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이경림(상대 64)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Free Consultation Tel: 1.212.768.9144 | info@klcpagroup.com
klcpagroup.com/klcpa 222 |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Chee Gap Kim, M.D.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 ☑ Physical Therapy
- ☑ Spinal Injections
- ☑ Acupuncture
- ☑ And More...



김치갑(의대 73)

김치갑 통증병원 201-541-1111 | KIMPAIN.COM
535 GRAND AVE, 2ND FL. ENGLEWOOD, NJ 07631



건강한 최고의 식탁을 한남체인이 책임지겠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만 품질이 좋지 않으면 절대 들이지 않고
신선한 제품으로만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한남체인은 매일매일 달리겠습니다



Los Angeles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orrance
토랜스점
(310) 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Fullerton
플러튼점
(714) 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Diamond Bar
다이아몬드바점
(909) 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La Palma
라팔마점
(562) 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Torrance(Del Amo)
토랜스 델라모점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New Jersey
뉴저지점
(201) 224-0036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